

●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조사 보고서-



● 일시 : 1997년 10월 11일(토) 오후 1시 30분

● 장소 : 고창군청 회의실

● 주최 : 고창문화원

● 후원 : 고창군

1997 제24회 모양성제 기념 학술회의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조사 보고회

- 日時: 1997년 10월 11일(토) 오후 1시 30분
- 場所: 고창군청 회의실

- 주최: 고창문화원
- 후원: 고 창 군

■ 학술회의 일정

1부

13:30-14:30 ■ 사회 : 신순철(원광대 사학과 교수)

개회사 ----- 김정승(고창문화원장)

경과보고 ----- 신순철(원광대 사학과 교수)

 '97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학술조사 경과보고

격려사 ----- 이호중(고창군수)

기조강연 ----- 이이화(역사학자, 전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의 요람이었다'

 - 동학농민혁명과 고창지방의 위치

2부

14:30-17:30

주제발표 I -- 송정수(전북대 사회교육과 교수)

 '전봉준 장군 출생지에 대한 고찰'

토론 : 신복룡(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제발표 II -- 이진영(전북대 사학과 강사·학술조사팀)

 '고창지역 농민혁명 문헌자료와 농민군 지도자'

토론 : 최현식(정읍문화원장)

주제발표 III -- 원도연(전북대 사회학과 강사·문화저널 편집장)

 '동학농민혁명 정신 및 유적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제언'

토론 : 박만규(전남대 역사교육과 교수)

폐회

目 次

■경과보고/고창지역 동학농민 학술조사 경과보고	학술조사팀	3
■기조강연/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의 요람이었다	이 이 화	9
■전봉준 장군 출생지에 대한 고찰	송 정 수	13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의 문헌자료와 농민군 지도자	이 진 영	23
■동학농민혁명 정신 및 유적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제언	원 도 연	49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조사 경과보고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조사팀

1. 사업취지 및 방향

고창지역은 전봉준의 출생지이자 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무장기포가 일어난 곳으로서, 한국근대사를 이해하는데 관건이 되는 동학농민혁명에서 실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창은 농민군의 주력을 이루었던 손화중포가 활동했던 지역이며, 농민군이 당시의 왕조와 부패한 권력에 대해 첫 번째 선전포고를 했던 무장기포의 현장이기도 했다. 더욱이 동학농민혁명 최고의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아왔고 그것은 동학농민혁명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해온 일반의 인식부족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지역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올해 고창문화원과 고창군에서는 이번 제24회 모양성제를 통해서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그것은 곧 고창지역이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가’ 하는 역사를 밝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고창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고창지역과 이 지역의 선조들이 지닌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될 것이다.

위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2개년도 사업방향을 세웠다. 먼저 1997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의 1차년도에는 고창지역의 농민혁명에 관한 문헌자료·유적지·농민군 지도자 등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기초적인 학술조사를 수행하여 발표하고, 아울러 농민혁명의 계승과 발전 방향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1차 학술대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그동안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고창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재현하고, 동학농민군의 활동경로를 추적하는 작업에 중심에 두었다. 1차 학술대회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을 드러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있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번 학술회의에 이어 내년 봄으로 예정된 2차 학술회의는 이번 학술조사

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7년 10월부터 1998년 4월까지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주제의 학술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학술사업은 고창 농민혁명사를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차지하는 고창지역의 위상과 특성을 정리하고, 농민혁명의 정신과 유적을 계승·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학술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뜻이 있다.

2. 학술조사팀의 구성과 일정

1997년 초 고창문화원과 고창군은 제24회 모양성제 기간에 동학농민혁명과 고창지역의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농민혁명에서 고창지역의 차지하는 위치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고창문화원에서는 이를 위해 고창문화원에서는 지난 5월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이 학술조사단은 단장에 신순철 교수(원광대 사학과) 연구원으로 이동희 박사(전북대 사학과 강사), 이진영 박사(전북대 사학과 강사), 원도연 선생(전북대 사회학과 강사) 등이 참여하였다.

학술조사단은 지난 7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고창지역을 실사하는 현지 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각 대학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공식, 비공식으로 발간되거나 공개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목록을 구성하며 그 내용들을 분석했다.

3. 1차년도 학술조사의 경과와 방향

1차년도 학술조사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로 여기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헌자료에 정밀 분석이고, 두 번째는 고창 현지를 답사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 유족들의 증언과 유적에 대한 확인작업이었다.

(1) 문헌자료 조사

문헌조사는 일차적으로 그동안 발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책자와 논문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97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9월까지 두달여 동안 계속되었다. 우선 학계에 알려진 각종 자료에서 고창지역 관련 사실을 단편적인 것까지 모두 찾아서 모았다. 이 문헌조사는 1996년 사학계에 동학농민혁명 관련기록 162종을 망라하여 내놓은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30권을 기본자료로 삼았고, 『총서』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들도 검토되었다.

(2) 현지 답사

- 조사일정 : 1997년 7. 1-8. 23(8주)
- 조사지역 : 고창군(고창현·무장현·홍덕현) 일대
- 조사자 : 신순철(원광대 교수), 이진영(전북대 강사), 원도연(문화저널 편집장, 전북대 강사)
연구보조원 2명

■ 조사내용

1) 예비조사

- ㄱ. 동학농민혁명 지역별 사례를 다룬 연구논문 및 자료검토
- ㄴ. 고창군 기간행 자료 조사

2) 현지 조사

- ㄱ. 고창지역의 동학 및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헌기록 발굴
- ㄴ. 고창의 농민군 지도자 후손 발굴 및 면담
- ㄷ.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확인

3) 既 간행된 동학농민혁명 문헌자료 중 고창지역 기록 수합

■ 현지조사 내용

1) 1, 2차 학술조사

1차 조사 : 1997. 7. 21-22(1박 2일), 홍덕현 일대

2차 조사 : 1997. 7. 25-26(1박 2일), 고창·무장·홍덕일대 수성군의 후손

□ 고창군 성내면 용교리 교동(다리골) : 홍덕현의 대표적인 농민군 지도자 高永叔의 거주지.

-김행순씨(고영숙의 孫婦, 1928년생, 용교리 29번지, 63-8260) · 高良圭씨(성내면장, 62-303 2) · 고광택씨(성내초등학교, 1942년생, 고영숙의 방손) 면담, 『장흥고씨족보』(1934년, 1966년) 열람

□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 홍덕 수성군 수창자 姜泳重의 거주지

□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 고창 수성군 수창자 姜守重(강영중의 三從兄)의 거주지

-姜亨熙씨(65세, 상갑리 107번지, 62-5037) · 姜魯元씨(61세, 상갑리370번지, 62-5098) 면담, 진주강씨 문중의 淸溪精舍 소장 고문헌·고문서 열람.

□ 고창군 아산면 도산리 도산 : 고창 수성군 지도자 金榮喆의 거주지

-안동김씨 종손 김종선씨(1932년생, 63-2485) 면담, 김정희 古家 소장 고문헌 열람

□ 고창군 고수면 평지리 무실 : 고창 수성군 지도자 李錫九의 거주지

□ 고창군 고수면 장두리 : 고창 수성군 참여자 金箕斗의 거주지

-김기두의 종손자 金昌洙씨(62-0136) 면담 및 소장 고문헌·고문서 열람.

- 고창군 공음면 군유리 상군 : 고창 수성군 참여자 鄭鍾衡, 崔聖源의 거주지
- 정종구의 증손자 鄭台熱씨(1924년생, 62-7451) 면담 및 소장 고문헌·고문서 열람.
- 고창군 공음면 덕림리 덕림 : 정의환씨(82세) 면담.

2) 3, 4, 5차 학술조사

3차 조사 : 1997. 8. 11-12(1박 2일), 무장 및 고창일대

4차 조사 : 1997. 8. 14-15(1박 2일), 무장 일대

5차 조사 : 1997. 8. 17, 무장 일대

-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당촌(고창문화원장 동행) : 전봉준 생가터에 대한 증언확보
- 고창군 성내면 부덕리 응골(엄골) : 백남균씨(87세) 면담.
- 고창군 고수면 평지리 평지 : 고창 수성군 지도자 이석구의 손자 李瑛寧(74세)씨 면담.
-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당산 : 공음면 호적제장 김수업씨 면담.
- 무장면 사무소 : 호적대장 확인
-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 : 최재섭씨(1945년생, 구수 563) 면담.
-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장동 : 무장 농민군 지도자 송문수 묘자리 확인.
- 고창군 무장면 원촌리 원촌 : 전봉준의 진중수행원 김홍섭의 손자 金共錫씨(40년생, 62-9005) 면담.
-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신촌 : 김진철씨(1921년생) 면담.
-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당촌 : 李相賢씨(36년생, 47번지)·김용철씨(49년생, 64번지) 면담 및 전봉준 생가터 지적도 확인,
- 고창군 무장면 노인당 : 金亨烈씨(83세) 면담.
- 고창군 공음면 두암리 송운동 : 홍기표씨(65세)·홍은표씨(70세, 465번지) 면담 및 『南陽(洪氏)大譜』(1977년간) 열람.
- 고창군 해리면 노인당
-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 : 선운사 사무장 윤주을씨 면담
- 고창군 아산면 월산리 검당
- 고창군 공음면 용수리 청천 : 배인수씨(동학농민혁명유족회 부회장) 면담.
- 고창군 무장면 원촌리 : 전봉준의 진중수행원 김홍섭 손자 김일석씨(경기도 화성) 면담.
- 고창군 아산면 도산리 : 고창 수성군 지도자 김영철의 후손 김경석씨 면담 및 수성군 활동 기록 『취의록』 열람.

4. 2차년도 학술회의 사업계획(안)

1) 출판사업

□ 자료집 발간

동학농민혁명 관련 공간 자료 혹은 발굴자료의 원전 가운데 고창지역 기사를 발췌하여 자료집으로 발간. 전체 약 400여쪽으로 예상되며, 이 자료는 앞으로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학술회의 논문집 발간

1차년도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및 토론내용과 2차년도 학술회의에서 발표될 논문 및 토론내용을 책자로 묶어 발간할 계획임. 이 학술 논문집은 각 지역단위에서 추진되는 지방사 연구의 모범이 될 수 있으며,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완전하게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학술대회

□ 일시 : 1998년 4월 27일(안)

□ 장소 :

□ 주제 :

□ 프로그램

기조강연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의 특성

제1부 주제발표

주제발표Ⅰ	조선후기 고창지역의 사회와 경제 -고창지역 농민혁명의 사회경제적 배경 문제
주제발표Ⅱ	고창 선운사 미륵불비기 사건과 손화중包 -고창지역의 사상적 동향과 동학 문제
주제발표Ⅲ	무장기포와 고창지역 농민혁명의 전개 -고창지역 농민혁명의 전개양상과 성격 및 특성 문제
주제발표Ⅳ	(전봉준과) 고창지역의 농민군 지도자의 성격 -전봉준의 출생지 문제 및 고창지역 농민군 지도자의 성분과 행적

제2부 종합토론

각 주제발표자(4명) 및 토론자(예상인원 4명)

5. 1차년도 학술조사의 성과와 과제

1차년도 학술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답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복원해냈다는 의미를 갖는다. 1차 학술조사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그동안 알려져왔던 사실을 확인하거나 혹은 잘못된 사실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무장·홍덕지역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발굴되었으며, 그것은 지역사의 큰 과제로 남았다. 이러한 내용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이후 주제발표를 통해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차년도 학술조사를 통해 남겨진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특히 그동안 공간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 가운데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자료들은 따로 모아 자료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들은 앞으로 지방사 연구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모범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제 1차년도 학술조사와 학술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의 보다 완전한 모습들을 발굴하고 그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것은 곧 고창이 지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승할 것인가의 문제와 닿아있다.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의 요람이었다

-동학농민혁명과 고창지방의 위치-

이이화(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공동대표)

1894년 농민군의 함성은 이 강산을 흔들었고 그들이 내건 깃발은 햇볕에 찬연히 빛났다. 이 일대 사건을 두고 우리는 동학농민전쟁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신분의 굴레를 벗기고 온갖 부정을 뜯어 고치고 제국주의 일본을 타도하려는 의지를 두고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부른다.

1년쯤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 나라를 연 5천년만에 처음으로 농민이 주체가 되어 전국적으로 벌인 혁명운동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혁명운동을 벌였고 미국에서는 노예해방을 위해 남북전쟁을 벌였다. 동학농민혁명도 분명히 세계사의 한 줄기였다.

이런 거대한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고창지방은 큰 역할을 하여 그 요람이 되었다. 오늘날의 고창지방은 1914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손으로 행정개편을 하여 원래의 고창과 무장 홍덕을 통합하여 이루어졌다.

고창 무장 홍덕은 동학농민전쟁의 과정에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위로는 정읍 고부 부안, 옆과 아래로는 장성 영광 법성포 나주와 접하고 있었다. 오늘날의 고창지방은 농민혁명에서 두 가지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하나는 총지휘자 전봉준 장군의 태생지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최초로 선전포고를 하였던 장소라는 점이다. 그외에 이곳 출신의 수많은 농민군과 지도자가 참여하였다는 사실도 꼽을 수가 있다.

전봉준은 천안 전씨로 고창군 덕정면 당촌리(지금의 읍내)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천안 전씨의 세거지(世居地)였다. 이곳의 전씨들은 지체높은 양반의 신분이 못되었으나 그렇다고 상민도 아니었다. 그저 중간층이었다.

전봉준의 집안은 무척 가난하였다. 그의 아버지 전창혁은 가난한 선비였다. 전창혁은 당촌에서 서당을 차리고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하며 어린 전봉준도 여기에서 글공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전봉준이 열살 조금 넘을 무렵에 이 마을 앞 인내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동네 아이들과 패싸움을 벌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아무튼 어린 나이에 전봉준은 아버지를 따라 고향을 떠나 원평 등지로 나가 살았고 청년이 되어서는 태인(지금의 정읍)이나 고부(지금의 정읍) 등지로 옮겨 살았다. 청년 전봉준은 때로 남의 땅을 소작붙이기도 하고 훈장노릇을 하기도 하고 약국을 하기도 하고 풍수같은 일을 보기도 하였다.

이런 속에 민중의 고통과 관권의 횡포와 나라 정치의 문란과 외국세력의 침투를 목격하고 이를 바

로 잡으려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의 아버지도 고부군수의 불법에 항의하다가 죽었다.

전봉준은 최고 지도자로 1893년 고부봉기와 무장선전포고를 주도하여 농민전쟁의 불길을 당기고 끝까지 항거하다가 체포되어 온갖 회유를 뿌리치고 당당히 사형을 받았다. 그는 이리하여 한국사에 우뚝한 영웅으로 우리름을 받았고 걸출한 지도자로 추앙되었다.

그가 죽고난 뒤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뿔뿔히 도망하였고 그가 태어난 당촌은 관군과 일본군의 손으로 불길에 휩싸였다. 오직 족보 하나를 건져 오늘날에 전해주고 있다.

1892년 8월에는 이 지방 민심을 충동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곧 선운사 도솔암 뒤에 있는 미륵불의 배꼽에서 비결을 동학도들이 꺼내 갔다는 소문이 사람들의 입으로 널리 전파된 것이다. 이 비결을 꺼내면 세상의 변란이 일어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무장현감 조명호는 이 주모자로 강경중 오지영 고영숙을 감옥에 가두었고 곳곳에서 동학도들을 잡아들였다. 동학도들은 감옥을 습격하여 위 세 사람을 꺼내 놓았고 곳곳에서 관권과 맞섰다. 이 사건은 뒤에 일어난 삼례집회와 원평집회의 전초단계가 되었다.

이 무렵 정읍출신의 손화중은 무장을 중심으로 동학을 포덕(布德)하고 있었는데 도솔암 비결사건은 이들 손화중포가 중심이 되어 벌린 것이라 한다. 또 전봉준은 삼례집회와 원평집회에서 타협적 자세를 버리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봉기를 주장하고 있었다.

마침내 1893년 겨울과 초봄에 고부에서 전봉준과 최경선 등 지도자의 주도아래 봉기가 일어났다. 농민군은 고부군수 조병갑을 징치하고 만석보를 헐고 창고의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조정에서는 새로 군수를 임명하고 조사관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조사를 하러 나온 안핵사 이용태는 민정은 살피지 않고 죄인을 잡는다고 골골을 들쭉시면서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리하여 농민들은 집을 떠나 숨어 다녔고 지도자들은 몸을 빼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였다.

전봉준 일행은 이해 3월 중순 무장으로 진출하였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 지도자들은 동음면 당산(지금의 공음면당)에 모였다. 이곳의 농민군 수천명은 무장에서 모여든 사람만이 아니라 이웃 고을에서도 달려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양곡을 모으기도 하고 조총을 거두어 들이기도 하고 창과 칼을 모아들이기도 하고 죽창을 깎기도 하였다. 그리고 군사연습을 시키기도 하였다. 일주일쯤 4천여명의 농민군을 규합하고 준비를 거친 뒤에 동도대장(東徒大將)이라고 쓴 깃발을 내걸고 대오를 정비하여 말을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무장현을 무혈점령하였다.

이제 진군이 나팔소리는 무장관아에서 크게 울렸다. 그리고 무장관아에서 전봉준의 창의포고문(倡義布告文)은 산천을 울렸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조정에는 간신들이 모여 부정을 일삼으며 임금의 충명을 가리고, 외방에서는 수령들이 온갖 수탈을 일삼아 백성들이 살 수가 없도다. 나라에는 국비에 쓸 재물이 없고 탐관오리들은 호사롭게 살고 있도다. 이에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 서노라’

이들은 보국안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봉기한 것이다. 이것이 최초의 선전포고였고 또 그들의 목적과 동기와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제 본격적 농민전쟁은 무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포고문 끝에는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전봉준의 비서로 이곳 출신인 송희옥 정백현이 정해졌고 또 송문수 강경중 송경찬 송진호 등이 지도자로 참여하였다. 특히 송희옥은 전봉준의 지시로 연락의 책임을 맡았고 정백현은 명문장가로 창의문 등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무장에서 출발한 농민군은 다시 고부로 진출하였고 이어 백산에 집결하여 다른 지방의 농민군을 더욱 규합하였다. 그래서 황토현의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들 농민군은 일단 중앙에서 보낸 관군을 유인하기도 하고 농민군의 세를 불리기 위해 정읍을 거쳐 홍덕 고창으로 깃발을 돌렸다.

고창에 들이닥친 농민군은 모양성을 점령하고 죄수를 풀어 주었으며 성앞에 살면서 부정축재를 한 은대정의 집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이어 무장으로 진군하여 못된 구실아치들을 징치하였다. 전봉준은 농민군들에게 엄하게 규율을 지켜 무고한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지 못하게 하였고 또 애매하게 잡힌 죄수를 풀어 주고 주린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농민군은 여시외에 진을 치고 군사연습을 하면서 관군의 동정을 살폈다. 이들은 영광을 거쳐 장성에서 관군을 크게 깨뜨리고 북상하여 전주성을 차지하였다.

집강소 기간에 고창에는 흉년관이 지휘하는 천민부대가 크게 활약하였다. 바로 가장 천대받던 백정 재인 역부 공장이 무당 등이었다. 이들은 자기 손으로 신분해방을 실현하였고 못된 벼슬아치와 부호를 혼내 주었다. 이때 세계 최초로 실현한 평등의 호칭인 접장(接長)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한편 홍덕에는 차치구라는 접주가 등장하여 열성으로 가혹한 고리대를 정리하거나 억울한 송사를 풀어 주거나 강제로 빼앗은 장지를 되돌려 주는 일을 하였다. 뒷날 그의 아들 차경석은 보천교를 창시하여 독립자금을 대주기도 하였다.

농민전쟁이 일본군의 개입으로 실패한 뒤에 이 지방의 농민군들은 일본군과 일본군의 지휘를 받은 관군에 의해 비참하게 죽어 갔고, 집은 불구덩이에 쓸어졌으며 재산은 모조리 빼앗겼다. 그리고 살아남은 농민군과 그의 가족들은 섬으로 도망쳤고 산속으로 숨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로운 행동은 우리 역사에 빛을 던졌으며 그들의 혁명정신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해방조국에서 아직도 그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원혼이 구천에 떠돌고 있다.

일제 식민지 지배자들은 그뒤에 농민군을 모질게 탄압하였다. 1898년 11월에 이화삼이라는 지도자가 홍덕의 농민 3백여명을 이끌고 홍덕의 관아를 습격하였다. 이들은 관아를 차지하고 무기를 거두었다.

이 사건은 영국인 목사가 말목장터에 교회를 세우고 영학계(英學契)를 만든 데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 동학농민군 지도자였던 이화삼이 끼어 있었는데 이이가 계원을 이끌고 홍덕 관아를 공격한 것이다.

이듬해 정읍의 최익서 등은 정읍을 비롯하여 고부 홍덕 무장 고창 장성 등지로 조직을 확대하여 4월 농민군 4백여명을 이끌고 고부관아를 점령하였다. 이어 홍덕을 점령하고 무장으로 가서 관아의

무기를 빼앗았다. 이들은 벌왜(伐倭) 벌양(伐洋) 그리고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었다.

4월 22일에는 고창 모양성을 공격하였으나 날이 어둡고 비가 쏟아져서 수성군에게 패전하고 주력 부대가 해산하였다. 여기에 홍낙관도 참여하였다.

이것이 농민전쟁이 끝난 뒤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봉기였다. 이때 수백명이 잡혀 맞아 죽거나 굶어 죽었으며 서울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남은 농민군들은 의병에도 열렬히 가담하였고 독립운동가로 변신하여 나라 찾기에 신명을 바쳤다. 고창지방의 인물들은 한국 역사의 주역으로 한 몫을 하였다. 그런데도 그동안 전봉준 태생지에 기념물 하나 설치하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조상의 위업을 기려야 할 것이며 내 고장의 선양사업이 곧 민족정신의 구현임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위대한 민족지도자 전봉준이 태어난 고장인 고창에 사는 사람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리라.

全琫準將軍 出生地에 대한 考察

『天安全氏丙戌世譜』를 통해서 본 全琫準將軍 家系와 高敞 堂村 出生說

송정수(전북대 사회교육과)

1. 머리말
2. 전봉준 장군 출생지에 대한 제설
3. 『丙戌世譜』를 통해서 본 전봉준 장군의 가계와 출생지
4. 『丙戌世譜』를 통해 확인되는 몇가지 사항
5. 맺음말

1. 머리말

1894년에 일어난 東學農民革命이 한국 近代史上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중요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¹⁾ 그렇지만 이 사건을 배태시킨 시대적 상황의 복잡성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일치된 見解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새로운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며, 앞으로도 多角的이고 深度있는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새로운 史實들을 보다 많이 발굴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지금까지 적지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마다 자료의 零細性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자료발굴에 대한 관심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우려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全琫準 將軍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가 차지하는 역사적 비중에 비해 그의 行蹟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그의 供草 記錄이나 그의 몇몇 資料 및 口傳에 의존하여 기술될 따름이며, 그 때문에 많은 부분이 여전히 공백과 의문으로 남아있다.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자료가 이처럼 인멸되어 영세한 것은 그간 이 사건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9세기 말 桎梏된 우리나라의 역사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1) 최근에까지 나온 이 사건에 관련된 연구논문 및 인쇄된 모든 자료는 朴孟洙, 「東學思想, 東學農民革命관련 研究論著目錄」, 『동학농민혁명 백주년기념사업 백서』 부록에 수록되어 있거니와 그 수량은 한국사 연구의 단일 주제로서 가장 방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인은 근년에 새로 발굴된 丙戌年(1886년)에 간행된 『天安全氏世譜』²⁾를 통해 전봉준 장군의 家系를 검토한 바 있다.³⁾ 여기에서 전봉준 장군과 全炳鎬라는 인물의 同一人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봉준 장군의 가계를 재구성해 보았으며, 또한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와 그의 행적을 나름대로 살펴 보았다. 물론 이를 확인할만한 명확한 자료를 아직 얻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피력한 본인 나름대로의 心證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며, 또한 여러 연구서에서도 이 내용이 소개되고 신빙성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새로운 많은 증언과 자료들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명확한 해명이 기대되는 바이며, 이러한 기대를 가지면서 본인은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기존의 諸說과 본인이 그간 살펴 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고자 한다.

2. 全瑋準 將軍 出生地에 대한 諸說

전봉준 장군은 1855년에 태어났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여러 많은 異說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역사적 중요 인물에 대한 관심이 뒤늦게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전봉준 장군의 유동적인 생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제기된 전봉준 장군 출생에 관한 제설들을 살펴 보면, 井邑縣 梨坪面(당시 古阜郡 宮東面) 長內里 鳥巢마을이라는 설, 全州 태생이라는 설, 井邑縣 山外面 東谷里 知琴谷(지금설)이라는 설, 井邑縣 德川面 柿木里(감녕기)라는 설, 그리고 高敞縣 德井面 竹林里 堂村 태생설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 설에 대해 이미 여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소개, 검토된 바 있지만 다시 정리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정읍군 이평면(당시 고부군 궁동면) 장내리 조소마을이라는 설은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당시 전봉준 장군이 이 곳에 살았던 것을 바탕으로 일찍이 金庠基 선생이 주장한 것이며,⁴⁾ 한 때 이 곳 출생설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 곳에는 전봉준 장군의 舊居가 지방문화재 19호로 지정되어 지금도 현존하고 있지만 1974년에 보수될 당시 '戊寅(1818, 1878) 2월 26일'이라는 干支가 적혀 있는 上樑文이 나왔거니와 전봉준은 공초에서 농민혁명으로 고부의 집이 모두 불에 탔다고 말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張奉善은 「全瑋準 實記」에서 전봉준이 泰仁縣 甘山面 桂峰里(현 정읍군 甘谷面 桂龍里)에서 고부군 궁동면 陽橋里로 移居하였다고 하고 있으며⁵⁾, 邕京源의 증언에 의하면 이후 양교리에서 다시 조소리로 이사하였다고 한다.⁶⁾ 이

2) 이하에서는 「丙戌世譜」로 略稱함.

3) 拙稿, 「全瑋準將軍 家系에 대한 檢討-『天安全氏世譜』의 全炳鎬와의 同一人 여부-」, 『호남사학연구』 2집, 1995.

4) 金庠基, 「東學과 東學亂」, (한국일보사, 1975), p.109. 金庠基는 이 책의 초판본(서울:대성출판사, 1947, p.78)에서는 전봉준이 古阜郡 宮東面 陽橋里에서 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한우근 교수도 그의 「동학 농민 봉기」(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교양국사총서, 1976, p.165)에서 양교리에서 출생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5) 張奉善, 「全瑋準 實記」, 「井邑郡誌」(履露齋, 1936), p.381.

6) 崔玄植, 「甲午東學革命史」, (정주:향토문화사, 1983), p.230.

로 미루어 보건대 조소마을은 이후 거처한 곳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곳 출생설은 신빙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전주태생설은 장봉선이 주장한 것으로, 전봉준 장군은 전주에서 태어나 어려서 태인현 감산면으로 이주하였다는 것이다.⁷⁾ 이에 대해서 일찍이 金義煥은 훗날 전주 인사들이 전봉준 장군을 崇慕하여 꾸며낸 설이라 하고 있지만⁸⁾, 전주는 전봉준 장군이 한 때 ‘龜尾聖人出(구미에서 성인이 나온다)’이라는 참위설에 따라 후에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金開南, 宋熹玉과 함께 잠시 全州郡 鳳翔面 龜尾里에 移住하여 머문 곳⁹⁾으로 전연 연고가 없던 곳은 아니며, 전주 태생설이 만들어진 것은 이런 연고와 관련해서 전봉준이 태인현 감산면 계봉리에 살 때 전주에서 이사해 왔다고 하여 전주출신으로 오해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¹⁰⁾ 아무튼 전주 태생설도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정읍군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이라는 설은 崔玄植의 주장으로¹¹⁾ 이는 전봉준 장군이 訊問을 받을 당시 주소를 이 곳으로 대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실이라는 곳은 전봉준의 마지막 거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곳이 그의 生家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며¹²⁾, 최현식 역시도 이후 泰仁 甘山에서 18세 때쯤 이곳으로 이주했을 것이라고 수정을 하고 있음을 보면¹³⁾ 이곳 역시도 출생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정읍군 덕천면 시목리라는 설은 邕京源의 증언을 바탕으로 신복룡교수가 제시한 설이다.¹⁴⁾ 翁敬원 은 그의 할아버지인 邕宅奎로부터 전봉준 장군이 시목리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는 것이며, 翁택규는 당시 정읍에서 손꼽히는 문장가였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전봉준 과도 친숙한 사이라는 점에서 이 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 교수는 이후 그의 연구에서 감녕기 역시도 한 때 거처했을 가능성이 많으며, 출생지는 아니었다고 수정을 하고 있다.¹⁵⁾

마지막으로 고창현 덕정면 죽림리 당촌태생설은 일찍이 『東學史』를 쓴 吳知泳이 주장하였다.¹⁶⁾ 이에 대해서 김의환은 정확한 고증은 후일로 미루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곳 당촌에는 天安 奎氏 20여 戶가 모여 살았고 또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의 두목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었다는 村老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봉준과 밀접한 연고가 있는 곳이라 하여 어느정도 긍정을 한 바가 있

7) 주 5).

8) 金義煥, 『全瑋準傳記』(서울:정음사,1974),p.41.

9) 金庠基, 앞의 책,pp.109-110. 최현식은 전봉준이 어려서 부모를 따라 전주 구미리로 이거했다고 한다.(崔玄植, 앞의 책, p.230)

10) 崔玄植, 앞의 책, p.231.

11) 崔玄植, 앞의 책, p.226.

12) 申福龍, 『全瑋準의 生涯와 思想』(서울:養英閣,1982),p.36. 특히 신복룡은 답사를 통해 전봉준의 마지막 거처도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이 아니라 그 곳에서 2Km쯤 떨어진 산외면 동곡리 원동굴이라 하고 있다.

13) 崔玄植, 앞의 책, pp.230-231.

14) 신복룡, 앞의 책, pp.36-7.

15) 신복룡, 『전봉준평전』(서울:지식산업사,1996),pp.56-7.

16) 吳知泳, 『東學史』(서울:영창서관,1973),p.161. ‘전봉준 선생은 본래 전라도 고창현 덕정면 당촌태생으로 世代 士林家 사람이다’

다.¹⁷⁾ 또한 정읍군 산외면 동곡태생을 주장했던 최현식도 이후 전봉준 先代의 世居地가 고창군 新林面 碧松里였고, 先代의 墓가 모두 벽송리 承判洞에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종래의 주장을 바꾸어 전봉준의 당촌태생이 정설로 인정된다고 하였거니와¹⁸⁾ 이 설은 기존의 여타의 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진데 비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한편 지금도 당촌에 가면 전봉준 장군이 태어났다는 집의 터를 확인할 수 있고, 마을 입구에는 그의 부친이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서당도 찾을 수 있다는 증언도 있거니와¹⁹⁾ 특히, 근년에는 『丙戌世譜』가 세상에 빛을 보게되면서 이 내용을 통한 전봉준 장군의 고창 당촌태생설은 더욱 신빙성을 얻어가고 있으며, 정읍군 덕천면 시목리 출생설을 주장했던 신복룡 교수도 근자에는 이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²⁰⁾

3. 『丙戌世譜』를 통해서 본 全琫準 將軍의 家系와 出生地

『丙戌世譜』를 통해 전봉준 장군의 고창 당촌 태생을 처음 주장한 것은 李起華 선생이다. 그는 堂村 일대의 口傳과 『丙戌世譜』, 그리고 先代와 형제들의 묘소를 추적하여 이 설을 새롭게 주창하여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²¹⁾ 물론 본인도 이 주장에 대해서 수긍할 뿐만 아니라 적극 찬동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위의 주장은 『丙戌世譜』에 있는 全炳鎬라는 인물이 전봉준 장군과 동일 인물이라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기정 사실화하여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천안전씨 문중에서는 『丙戌世譜』를 바탕으로 1986년(庚戌年)에 『天安全氏大同譜』²²⁾를 간행하면서 전병호라는 인물을 전봉준 장군과 동일 인물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 역시 두 인물이 同一人이라는 어떠한 설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본인은 위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인물의 동일인 여부를에 대한 해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새로 간행된 『大同譜』의 誤記를 바로 잡을 필요성에서 이에 대해 나름대로의 검토를 한 바 있고, 또한 이를 토대로 전봉준 장군의 가계에 대해 재구성해 보았다.

기왕의 연구에서 본인은 두 인물의 출생연도가 1855년으로 같고, 礪山 宋氏家の 女息과 혼인을 하며, 前妻와 死別을 한 후 李氏를 후실로 맞아들이는 등 처가의 여러 정황이 일치하거니와, 출생지 및 여타의 행적에서도 동일인임을 검토하였다.²³⁾ 물론 이러한 정황만으로 동일인임을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丙戌世譜』를 지니고 있던 全聖泰씨의 확고한 증언과 철저하게 정황증거가 인멸된 인물에 대한 이만한 방증이고 보면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복룡 교수가 지적한 『天安全氏世譜辛未譜』(1931년 刊)에 전봉준의 號가 『丙戌世譜』에 있는 전병호의 號인 鐵爐로 기록되었다는 사실도²⁴⁾ 두 인물이 동일인일 가능성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17) 金義煥, 앞의 책, pp.41-2.

18) 崔玄植, 앞의 책, p.230-1.

19) 우윤,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창작과 비평사, 1993), p.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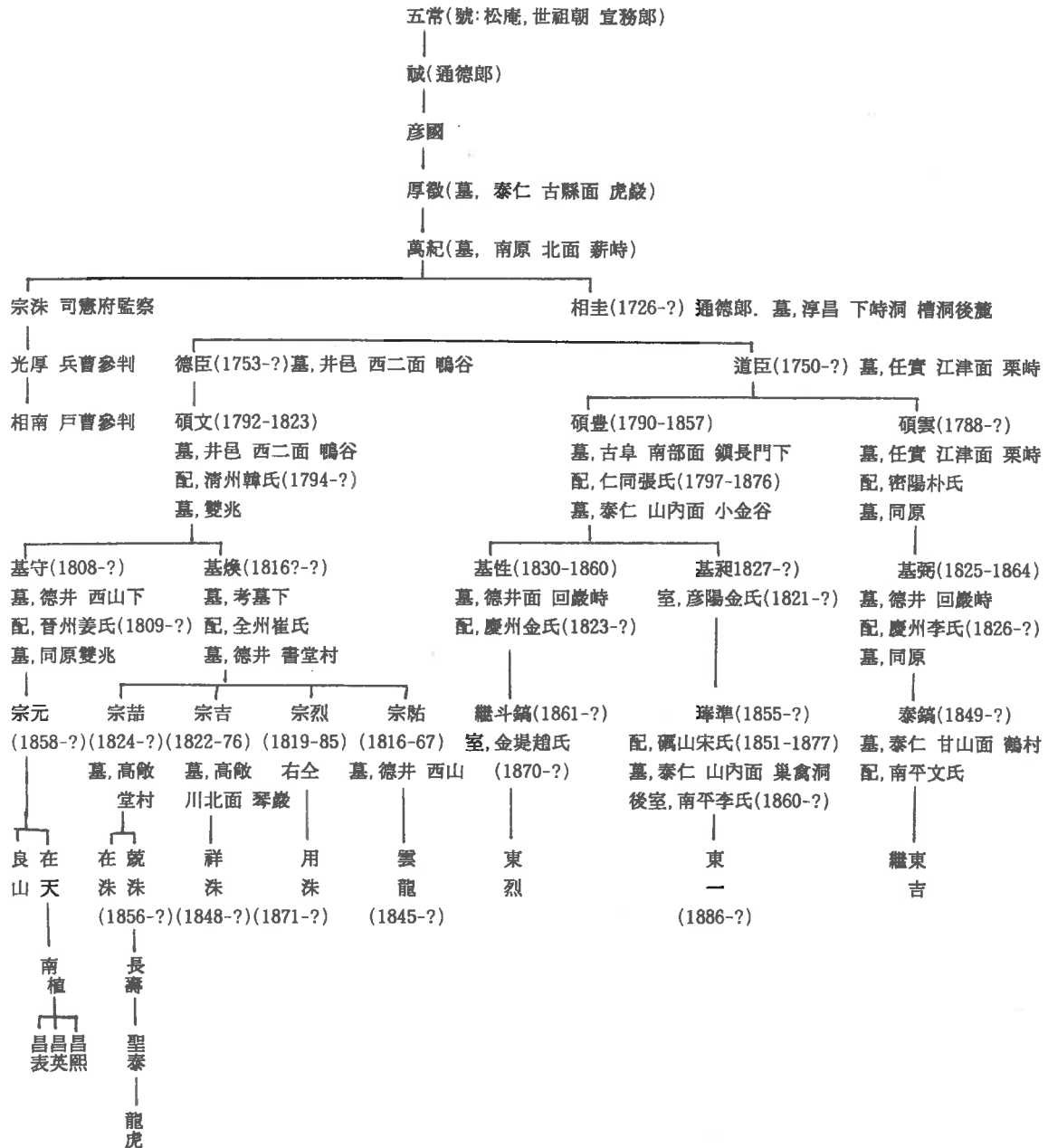
20) 신복룡, 앞의 책, p.57.

21) 李起華, 「全琫準은 高敞 堂村 胎生」, 『鄕土史料(12-13)』(고창문화원, 1993)

22) 이하에서는 『庚戌世譜』로 略稱함.

23) 拙稿, 앞의 글, pp.254-259 참조.

그러면 이하에서는 두 인물이 동일인임을 상정해서 『丙戌世譜』와 이후 이를 토대로 해서 간행된 『庚戌世譜』(1986년刊)를 근거로 그의 家系 및 이동경로와 출생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庚戌世譜』에 의하면, 전봉준 장군은 天安全氏 文孝公(名은 信, 號는 栢軒)派의 枝派인 連山公(敏) 曾孫 松庵公(五常)孫派에 속해 있다. 그는 천안전씨 始祖인 聶으로부터는 53世孫이며, 文孝公으로부터는 17世孫이고, 松庵公으로부터는 10世孫이다.²⁵⁾ 松庵公 五常으로부터 그에 이르기까지의 家系를 圖表로 구성해 보면 위와 같다.

위 도표의 내용을 보면, 五常이 宣務郎을 지냈고, 그의 아들 誠도 通德郎을 지냈거니와 전봉준 장군의 高祖父가 되는 相圭도 通德郎의 벼슬을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전봉준 장군 先代의 집안은 비록 지체가 높지는 않지만 양반의 가문이었던 듯하다.²⁶⁾ 그러나 曾祖父인 道臣 이후로는 관직을 지낸 인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보면, 그의 집안은 점차 몰락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봉준 장군의 집안은 厚徵代에 泰仁 부근에 자리를 잡은 후, 남원 순창 등지를 거쳐 증조부인 道臣代에 임실 강진면에 정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丙戌世譜』에 後徵과 그의 妻의 묘지가 泰仁 古縣面에 위치하며, 그의 아들 萬紀夫婦의 묘가 南原 北面에 위치하고, 그의 손자인 相圭부부의 묘가 淳昌 下峙洞에, 그리고 道臣부부와 그의 長子인 碩雲의 묘지가 모두 임실 강진면 栗峙에 있음에서 추정할 수가 있다. 물론 묘지가 위치한 곳이 반드시 거주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교통수단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당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葬地와 거주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따라서 이러한 추정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집안은 2代 정도에 걸쳐 임실 강진면에서 거주하였던 것이지만 일찍이 道臣의 아우 德臣은 井邑 西二面으로 이주해 나가고²⁷⁾, 또한 도신의 자식대에 이르러서는 碩雲의 동생 즉, 전봉준의 祖父인 碩豐의 묘지가 古阜 南部面에 있음을 보면, 全瑋準家도 조부 때에 큰집과 떨어져 고부군으로 이주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증조부, 조부대에는 임실, 정읍, 고부 등지에 각기 흩어져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전봉준의 父親代에 이르러서는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은 高敞 德井으로 모두 이주하여 합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일 장손인 基弼과 그의 妻의 묘가 德井 回巖峙에 있음으로 보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임실에서 덕정으로 이주했음을 알 수 있고, 전봉준의 작은 아버지인 基性의 묘도 역시 같은 곳에 있음으로 보아 고부에서 고창 덕정으로 이주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碩文의 자손인 基煥의 家와 基守의 家 역시도 이들 묘가 모두 堂村과 西山 등지에 위치함으로 보아 정읍에서 고창 덕정으로 이주해 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전봉준 장군의 부친인 基昶의 묘지가 世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합류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基昶의 친 동생인 基性뿐 아니라 사촌 큰형인 基弼의 家 그리고 6村인 基煥, 基守의 집안까지²⁸⁾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고창 덕정면 당촌으로 모여 든 것은 분명 우연은 아니며, 서

25) 신복룡교수는 전봉준을 始祖인 聶으로부터 24世라 하고 있으나(신복룡, 앞의 글, p.61) 『丙戌世譜』에 전봉준(병호)의 세대가 24世로 되어 있는 것은 兵相公 宗道로부터 헤아린 세대이다.

26) 相圭의 동생인 宗洙는 司憲府 監察을 지냈거니와 그의 아들과 손자는 각기 兵曹參判, 戶曹參判의 높은 벼슬을 지냈음을 볼 수 있다.

27) 德臣의 묘지와 德臣의 아들 碩文의 墓 및 손자인 基煥의 묘가 井邑 西二面 鴨谷에 있음으로 보아 德臣의 家는 순창에서 정읍 서이면으로 이주하여 3代에 걸쳐 이 곳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간에 긴밀한 협의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루 미루어 基昶 역시도 동생인 基性과 함께 같은 무렵에 고부에서 이곳 고창 덕정면 당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송암공과 자손들은 당촌에 정착한 후 3대째 이곳을 터전으로 해서 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이거니와, 특히 기환의 자손들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직후까지도 이곳에 계속 거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⁹⁾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전봉준 장군의 집안은 조부대까지만 해도 서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부친인 基昶대에 이르러서 모두 고창 덕정면 당촌으로 이주하여 합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 곳에 천안전씨 20여 호가 살았다는 증언과도 일치하거니와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면 전봉준 장군이 바로 이곳 당촌에서 태어났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앞에서 소개한 吳知泳을 비롯한 여러분의 증언 및 주장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4. 『丙戌世譜』를 통해서 확인되는 몇가지 사항

이제 『丙戌世譜』를 통해 전봉준 장군의 신상과 행적에 관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 추정해 보고자 한다. 우선 『丙戌世譜』 卷6에 기록되어 있는 전봉준 장군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면 아래와 같다.

“初名 鐵爐, 字 明佐, 哲宗 乙卯 十二月 三日生. 配 礪山 宋氏 斗玉女 辛亥 八月 十六日生. 忌丁丑 四月 二十四日. 墓 泰仁 山內面 巢禽洞 祖妣墓下 卯坐. 後室 南平 李氏 文琦女”

위의 내용에서 먼저 전봉준 장군은 哲宗 乙卯년, 즉 1855년 12월 3일에 태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래 그의 출생년대에 대해서도 1854년인가 1855년인가 분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금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1855년생임이 거의 인정되는 바이지만 그의 구체적인 생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³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丙戌世譜』를 통해서 그가 1855년에 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 그의 생일도 12월 3일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봉준의 처음 이름은 鐵爐이고, 자는 明佐였으며, 그의 호적상의 이름은 炳鎬였음을 알

28) 基煥의 墓는 그의 부친인 碩文과 같이 井邑 西二面 鴨谷에 있음으로 보아 그는 堂村으로 오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며, 그러나 그의 妻인 全州 崔氏의 墓는 書堂村에 있음으로 미루어 그의 아들과 함께 이 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29) 전봉준과 같은 代인 基煥의 자식들, 즉 宗祐, 宗烈, 宗吉, 宗喆의 묘지가 모두 堂村 혹은 그 부근에 있거니와(世系圖 참조), 동학농민혁명 후 당촌에 살던 전씨 집안이 멸족을 당했다는 전성태의 증언(이기화, 앞의 글, p.21)에서 이들 집안은 동학농민혁명 직후까지도 이 곳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禍를 당했던 사람들은 基煥의 손자인 雲龍, 用洙, 祥洙와 그의 자식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0) 일찍이 車相瓚은 전봉준이 1854년(甲寅) 4월 11일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車相瓚, 「근세사상의 東學黨 首領 全瑋準(1)」, 『朝光(2/5)』, 1936년 5월호, p.88.) 그러나 이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신복룡, 『전봉준평전』, p.56. 주 4) 참조.

수 있다. 종래 그의 이름은 봉준 외에 泳準, 字는 明淑, 別號로 녹두 등의 명칭이 알려져 왔다. 여기에서 泳準이라는 이름과 明淑이라는 자는 僞作으로 밝혀진 천안전씨 三宰公派의 족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겠지만, 혹 당시 이러한 명칭으로도 불려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供草의 내용 가운데 明淑은 ‘나의 字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음을 보면 明淑이라는 字를 사용했음은 확실하다 하겠다.³¹⁾ 아울러 供草의 내용에서 전봉준은 ‘전봉준이라는 이름 하나뿐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너의 이름은 한두 가지가 아니니 도대체 몇 개나 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이에 대한 추궁을 끈질기게 하고 있음으로 보아³²⁾ 전봉준은 실제 여러 이름을 사용했거나 불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지만 당시 웬만한 사람이면 호적상의 이름, 실제 부르는 이름, 字, 雅號, 別號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진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하면 전봉준 장군도 瑋準이라는 이름 외에 호적상으로는 炳鎬, 字로는 明淑과 明佐, 別號로 녹두 등으로 불렸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위 世譜의 내용을 통해서 전봉준 장군은 성년이 되어 4살 위인 礪山 宋氏 斗玉의 딸(1851년 8월 16일생)과 혼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봉준의 妻에 관해서 종래에는 全州 崔氏로 알려진 적도 있었다.³³⁾ 그러나 供草의 내용에서도 비서였던 宋熹玉과의 관계를 끈질기게 신문하고 있거니와 그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봉준은 妻家로 7寸이 된다고 대답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³⁴⁾ 전봉준 장군의 妻家は 礪山 宋氏임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한편 그의 빙부인 宋斗玉은 당시 務安에서 농민군을 이끌었던 장령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³⁶⁾

아울러 위 世譜의 내용에서 전봉준 장군은 1877년 4월 24일에 妻와 死別을 하고 그의 처를 泰仁山內面 巢禽洞 할머니 묘 밑에 안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전처와 사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언제 사별을 했는지는 지금까지 밝혀지질 않았는데, 우리는 위 내용에서 전봉준은 23세의 젊은 나이에 상처를 한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다. 또한 전봉준 장군의 처의 무덤이 지금까지는 구끼찌 권조의 주장에 따라 황토현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³⁷⁾ 위 世譜의 내용에 근거한다면 산내면 소금동에 안장했음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³⁸⁾ 아울러 이 묘지의 위치와 관련해

31) 「全瑋準 供草」 4招(1895년 3월 7일)

32) 「全瑋準 供草」 4招(1895년 3월 7일)

33) 경향신문 기자였던 李鏞善은 1960년대 후반무렵 李京烈과 全用辰의 증언을 토대로 이를 주장하였다. 李鏞善, 「누가 녹두장군의 후예인가?」, 『여성동아』 1968년 9월호, pp.126-7. 신복룡교수도 한 때 이용선의 주장을 바탕으로 전봉준의 妻를 전주 최씨로 인정하였지만, (「全瑋準의 生涯와 思想」, p.52) 이후 이를 수정하고 있다. (「전봉준평전」, p.80)

34) 「全瑋準 供草」 3招(1895년 2월 19일)

35) 東學의 증인이었던 宋憲玉이 전봉준 장군의 妻叔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拙稿, 「全瑋準將軍 家系에 대한 檢討」, p.255 참조.

36) 동학 농민군이 고부성을 함락한 후 백산에 돌아와 진을 치고 두 번째 檄文을 발한 시점을 前後로 각지에서 농민군 長領들이 모여드는데, 바로 이때 宋斗玉은 務安에서 裨主仁, 裨主贊, 宋寶浩, 朴堪雲, 鄭敬澤 등과 함께 농민군을 이끌고 白山으로 진출하였다. 吳知泳, 『東學史』 (서울:영학서관, 1973), p.113.

37) 菊池謙讓, 『朝鮮近世史(下)』 (서울:계명사, 1939), 「東學黨의 亂」의 내용 중 전봉준의 인물편.

서 추정되는 것은 전봉준 장군이 喪妻했을 무렵 그는 태인에 거주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언제 태인으로 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의 할머니 묘소도 산내면 소금곡임을 미루어 생각하면 적어도 그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1876년 이전에 이곳 태인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전봉준이 어려서 堂村을 떠나 태인에 거주했다는 주장과도 일치하거나³⁸⁾ 특히 ‘전봉준이 당촌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따라 전주 구미리로 이주했다가 다시 태인 감산면으로 이사하여 몇해를 지내다가 18세 되던 무렵 태인 산외면 동곡으로 이사하여 이곳에서 성장하였다’라는 최현식의 주장은 상당히 정확하다고 보여진다. 태인은 전봉준의 6촌 兄인 泰鎬가 일찍이 당촌을 떠나 살고 있던 곳으로⁴⁰⁾ 전봉준이 연고가 있는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는 사실이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며, 또한 조모와 처를 안장했던 산내면 소금곡은 태인 산외면 동곡과 인접해 있는 곳임을 생각하면 이 무렵 그는 동곡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⁴¹⁾

마지막으로 위 『丙戌世譜』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喪妻를 한 이후 전봉준은 後室로 南平 李氏 文琦의 女息을 후실로 맞이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기존에 전봉준은 再娶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⁴²⁾ 일반적으로 前妻와 死別을 하고 後室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며,⁴³⁾ 특히 구끼찌 겐조가 전주화약 이후 전봉준이 고향인 태인 東谷으로 돌아왔을 때의 광경을 묘사한 내용 가운데 ‘이곳에서는 후처인 이소사가 오랫동안 외로운 안채를 지키며 전처의 소생과 자기의 소생 두 아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갑자기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는 이소사의 기쁨과 두 아이의 환호는 비유하기 어려운 광경이었다’⁴⁴⁾라는 내용을 전주어 생각하면 전봉준의 후실은 李氏 姓을 가진 여인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丙戌世譜』를 통해 전봉준의 부친은 1827년생으로 彰赫, 亨鎬, 承泉 등의 이름과 함께 호적명은 基禔임을 알 수 있고, 그의 모친은 1821년 생으로 彦陽金氏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世譜에 의할 것 같으면, 전봉준은 東一이라는 한 아들을 두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東一은 『丙戌世譜』가 간행이 된 1886년생인 것으로 보아 후처의 소생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전봉준의 큰

38) 이 내용은 앞으로 좀더 면밀히 고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황토현 남쪽에 있다는 묘소는 그의 父母의 묘소나 아니면 後室의 묘소가 아닐까하는 추측이 든다.

39) 우윤은 20세를 전후한 시기에 태인에 거주했다고 하고 있으며(『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p.41), 최현식은 18세되던 무렵에 태인으로 이주했다고 보고 있다(최현식, 앞의 책, p.230-1)

40) 泰鎬의 墓가 泰仁 甘山面 鶴村에 위치함에서 이를 추정할 수가 있다.

41) 전봉준은 황새마을에 살 때, 아버지와 함께 金德明의 집에 살다시피 하면서 김덕명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하는데(역사문제연구소편,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 1997, p.15), 전봉준의 모친이 彦陽金氏로 김덕명과 같은 집안임을 감안하면 전봉준은 어려서부터 청년시절에 걸쳐 外家가 있는 태인 부근에 살았을 개연성이 크다 하겠다.

42) 申福龍, 『全琿準의 生涯와 思想』, p.52.

43) 신복룡은 전봉준이 재취를 하지 않고 어린 4남매를 손수 양육했다고 하였으나(주 32) 1981년 1월에 姜今禮 노파로부터 들은 증언을 바탕으로 吳氏門中의 한 과수대를 후실로 맞이했다고 하고 있다.(신복룡, 앞의 책, p.149)

44) 菊池謙讓, 앞의 글 중 전봉준의 귀향편.

집인 泰鎬의 家는 後嗣가 없어 東吉을 양자로 삼아 代를 잇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東吉은 璿準의 자식인지 斗鎬의 자식인지 확실치 않으나 이 두 집안 중 어느 한 집의 자식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집에 양자를 입적시킬 때에는 작은 집의 자식 가운데 적장자를 入籍시키는 것이고 보면 아마 東吉은 전봉준의 長子였을 가능성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봉준의 두 아들은 東吉과 東一이었던 것 같다.⁴⁵⁾

5. 맺음말

이상에서 전봉준 장군 출생지와 관련한 제설을 살펴보고, 『丙戌世譜』를 통해 그의 家系 및 출생과 그밖의 몇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았다. 종래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에 관해서 여러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高敞 堂村 出生說을 제외한 다른 주장들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신빙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고창 당촌 출생설 역시도 吳知泳에 의해 일찍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없었기 때문에 定說로는 받아들여지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이 설은 다른 설에 비해 신뢰성있게 받아들여져 왔거니와 근자에 이르러 『丙戌世譜』가 세상에 빛을 보게되면서 더욱 신빙성을 얻어가고 있으며, 기존에 다른 설을 제기했던 연구자들까지도 이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丙戌世譜』에 있는 全炳鎬라는 인물이 전봉준 장군이었음은 이제 거의 확인이 되고 있고, 天安 全氏 門中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庚戌世譜』를 간행하여 두 인물을 동일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世譜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전봉준 장군의 家門은 祖父代까지만 해도 임실, 정읍, 고부 등 각지에 흩어져 살아왔다. 그렇지만 父親代에 이르러 이들 모든 집안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高敞 堂村으로 이주하여 집성촌을 이루며 생활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또한 전봉준의 부친인 基禔도 이무렵 여러 형제 및 인척들과 합류하거니와 전봉준 장군은 바로 이곳 堂村에 정착한 이후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世譜의 내용에서 이들 松庵公 자손들은 이곳 堂村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맞이할 때까지 3대째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전봉준은 堂村을 떠나 泰仁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 및 주장과도 일치하는 사실이다. 또한 世譜의 내용을 통해 전봉준은 그 동안에 礪山 宋氏와 혼인을 하지만, 1876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를 이어 이듬해에 전처와도 사별하는 슬픔을 맞고, 이후 南平 李氏를 後室로 맞아들여 두 아들을 두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거니와 이는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전봉준 장군의 가계와 부합되는 내용들이다.

아무튼 이상의 내용에서 『丙戌世譜』의 전봉준 관련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부합되거나 이에 근거한 전봉준 장군의 고창 당촌 출생설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45) 拙稿, 앞의 글, pp.262-3. 참조.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의 문헌자료와 농민군 지도자

이진영(전북대 사학과)

1. 고창지역 농민혁명 관련 문헌자료
 2. 고창지역 농민군 지도자의 인물과 행적
- 자료 1. 高敞·興德 守城廳 座目
- 자료 2. 1898년과 1899년 농민봉기와 고창지역 인물

전라도 무장현·고창현·흥덕현 등 지금의 고창군 일대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핵심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역사적 위상에 비해 그간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근래들어 전봉준의 태생지(고창현 당촌)라는 사실과 무장기포(무장현 당산)와 관련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고, 향토사가의 노력에 의해 전개양상의 윤곽이나마 대략 검토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전모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고창지역은 농민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관련 문헌자료 및 전개 과정과 농민군 지도자들의 인물과 행적 등이 총괄 정리되지 못했다. 이로 해서 고창지역의 농민혁명, 또한 조선후기 고창지역의 여러가지 특성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글은 한국근대사에 분수령을 이루는 동학농민혁명, 그 가운데서도 중심지인 고창지역의 농민혁명사 복원을 위한 사전조사 결과보고이다.

1. 고창지역 농민혁명 관련 문헌자료

고창지역 농민혁명의 실상을 복원하고 나아가 성격과 의미를 부여하고자 할 때, 선행할 것은 말할 나위 없이 그에 관한 문헌자료를 집성하는 일이다. 이에 본 조사팀은 고창지역 농민혁명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우선 학계에 알려진 각종 자료에서 고창지역 관련 사실을 단편적인 것까지도 모두 찾아서 모았다. [이 문헌조사는 1996년에 사학계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기록 162종을 망라하여 내놓은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이하 『총서』라 함) 30권을 기본자료로 삼았으나, 『총서』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들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나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기록을 발굴하기 위해 5회에 걸쳐 고창지역 여러 곳을 현장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고창지역 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특성에 따라 몇개의 소주제로 세분하고, 이번 조사로 모은 문헌자료를 주제별로 소개하겠다. 이같은 조사내용이 향후 고창지역 농민혁명의 실상을 심화·복원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 무장 선운사 미륵비결사건

1892년 8월 무장·고창일대 동학교인들이 일으킨 선운사 미륵비결 탈취사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농민혁명 직전 이 일대의 분위기를 그려볼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은 내용이 소략한데 비해, 『동학사』는 그 저자인 오지영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었던 만큼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학사』에는 비기사건의 주모자, 무장관아의 대응, 무장의 동학교단과 교도의 동향, 이 사건이 무장·고창·홍덕 일대 농민과 동학교단에 미친 영향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오하기문』(『총서』1, 46면)

『동학사(초고본)』(『총서』1, 433-438면) 및 『동학사』(『동학사상자료집』2, 87-92면)

『영상일기』(『총서』2, 271-272면)

『동학문서』=『Mutel문서』(『총서』5, 47-57면)

(2) 농민혁명 직전, 무장·고창·홍덕의 동학

동학교단은 1905년 천도교로 개칭한 이후, 각 지역의 교단사를 작성케 하였다. 전라도에도 전주·남원을 비롯한 여러지역의 교단사가 남아있어 해당지역의 농민혁명 직전 동향과 지도자의 성장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고창지역의 동학교단사는 현재 전하는 것이 없으며, 작성여부조차 알 수 없다. 고창은 농민혁명 이후 토벌군에 의한 타격을 매우 크게 입은 탓인지, 농민혁명 이후로는 동학교단의 활동이 보이지 않으며 교단의 '還元' 기록 등에도 고창인물이 거의 없다. 이로써 보면, 고창일대의 동학은 농민혁명 직후 사실상 단절된 듯하다. 이로 해서 고창지역은 농민혁명 전단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가 힘든 상태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교단측 문헌에 무장·고창·홍덕지역 동학지도자 및 그들의 교조신원운동(동학공인운동) 참여활동, 안렴사 이용태를 비롯한 관아의 동학교도 수탈과 이 일대 동학교도의 대응 등이 기록되어 있어 농민혁명 직전 이 지역의 흐름을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

『동학사(초고본)』(『총서』1, 433-450면) 및 『동학사』(『동학사상자료집』2, 70-92, 106-107면)

『해월신사』(『총서』28, 216-217면)

『시천교종역사』(『총서』29, 102면)

『천도교회사초고』(『동학사상자료집』3, 446-448면)

『한국민중운동사대계1 동학문서』, 86-91면

(3) 무장기포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3월 20일 무장기포와 그 직후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문헌에 있다. 이 가운데 「수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헌은 대개 무장기포와 관련한 단편적인 사실만을

적고 있다. 「수록」에는 무장기포 직전의 무장현 동음치면과 인근의 동향, 무장기포와 倡義文(布告文), 기포 직후부터 3월 25일까지의 농민군 이동경로 및 활동 등 무장기포의 실체와 그 전후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오하기문」(『총서』1, 52-56면)
- 「동학사(초고본)」(『총서』1, 451-455면)
- 「취어」(『총서』2, 124-126면)
- 「통유동학도문」(『총서』2, 382면)
- 「백석서편」(『총서』3, 301면)
- 「임하유고」(『총서』5, 22면)
- 「갑오사기」(『총서』5, 39면)
- 「동학문서」(『총서』5, 63-65, 136면)
- 「수록」(『총서』5, 157-161면)
- 「동비토록」(『총서』6, 159-160면)
- 「전봉준판결선고서」(『총서』18, 429-438면)
- 「한국동학당봉기일건」(『총서』19, 280-281면)
- 「시사신문」(『총서』22, 283면)
- 「동경조일신문」(『총서』22, 382면)
- 「대판조일신문」(『총서』23, 9면)
- 「대판매일신문」(『총서』23, 195면)
-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총서』25, 27면)
- 「갑오동학란」(『총서』27, 354, 356면)
- 「시천교종역사」(『총서』29, 103면)

(4) 백산대회 이후 전주성 점령까지

3월 25일 고부 백산에 호남우도 일대의 농민군이 집결하여 지휘체계를 갖춘 이후, 4월 7일 고부 황토재, 4월 23일 장성 황룡촌에서 승리를 거두고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하기까지의 무장·고창·홍덕 관련 내용은 다음 문헌에 있다. 여기에는 무장·고창·홍덕 지역에서의 전라 감영군 및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의 동향, 이 지역 관아의 급박한 상황, 이 일대 농민군 지도자의 이름, 농민군의 훈련·전투와 이동경로, 타지역 농민군과의 연대 시도, 농민군의 관아점령·군기와 장부탈취·향리와 토호처벌·파옥 등과 같은 점령 활동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수록」, 「양호초토등록」, 「양호전기」는 3월 봉기 당시 이 일대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복원에 크게 도움이 된다.

- 「오하기문」(『총서』1, 60, 64-67, 310면)
- 「동학사(초고본)」(『총서』1, 457, 467면) 및 「동학사」(『동학사상자료집』2, 107-114면)
- 「취어」(『총서』2, 121-126면)
- 「백석서편」(『총서』3, 470면)

「면맹행전일기」(『총서』4, 316, 318면)
 「갑오사기」(『총서』5, 39-40면)
 「수록」(『총서』5, 167, 173, 176, 178, 189-193, 196, 198, 203면)
 「양호초토등록」(『총서』6, 10-16, 18, 30-54면)
 「양호전기」(『총서』6, 89, 94, 96, 99, 104, 111-112면)
 「동비토록」(『총서』6, 162-166, 172, 212면)
 「동도문변」(『총서』6, 352면)
 「일사」(『총서』7, 472면)
 「장계」(『총서』17, 189면)
 「전봉준공초」(『총서』18, 24면)
 「전봉준판결선고서」(『총서』18, 429-438면)
 「한국동학당봉기일건」(『총서』19, 254, 289면)
 「한국동학당봉기일건」(『총서』20, 325면)
 「이륙신문」(『총서』22, 100면)
 「시사신문」(『총서』22, 282, 288, 320면)
 「동경조일신문」(『총서』22, 382-383면)
 「만조보」(『총서』22, 392, 410, 427면)
 「대판조일신문」(『총서』23, 4, 6, 13, 19면)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총서』25, 4, 29면)
 「갑오조선내란시말」(『총서』25, 99, 126, 133면)
 「내란실기 조선사건」(『총서』25, 174, 176-177면)
 「시천교종역사」(『총서』29, 108면)
 「주한일본공사관기록」권1 19면, 권2 98면
 「우편보지신문」1894년 4월 27일자, 5월 24일자, 1895년 3월 16일자
 「일본」1894년 6월 9일자, 6월 11일자
 「매매신문」1894년 4월 27일자, 6월 3일자
 「동경일일신문」1894년 5월 29일자, 5월 31일자, 6월 20일자

(5) 전주성해산 이후 9월 재봉기 이전까지

5월 7일 전주성에서 물러난 농민군은 각지로 분산한 가운데 전라도 여러 군현에 집강소를 두고 행정력을 장악했으며, 6월 21일 일본군이 궁궐을 점령하자 이에 반발하여 여러 지역에서 척왜봉기를 일으켰다. 그리고 9월초순경 재봉기에 나섰다. 대체로 전주성해산 이후부터 9월재봉기 직전까지를 집강소 통치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의 무장·고창·홍덕일대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은 다음 문헌에 있다. 여기에는 전주성해산 이후 농민군의 분산 및 무장 고창·홍덕일대 장악양상, 이 지역 농민군의 타지역(扶安, 珍島 등) 진출 및 斥倭봉기 활동, 경군의 동향 등이 나타나 있다. 또한 이 지역 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취조기록을 통해 이 기간의 농민군 활동상을 간접적으로 읽어볼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기록이 대단히 적어서, 이 기간의 농민군 활동은 구체적으로 추적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면양행견일기」(『총서』4, 322면)
「수록」(『총서』5, 223, 233, 244면)
「양호초토등록」(『총서』6, 23-24면)
「양호전기」(『총서』6, 146, 153면)
「순무선봉진등록」(『총서』14, 211면)
「양호우선봉일기」(『총서』15, 275-280면)
「장계」(『총서』17, 198면)
「대판조일신문」(『총서』23, 69, 75면)
「주한일본공사관기록」권1 112면, 권3 209-215면
「일본」1894년 7월 9일자
「매매신문」1894년 7월 9일자
「동경일일신문」1894년 7월 10일자, 8월 5일자

(6) 9월 재봉기 이후 11월말 해산까지

9월 8일경 재봉기하여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농민군은, 전봉준·손병희가 논산에서 만나 공주를, 김개남이 금산을 거쳐 청주를 공격하고 손화중과 최경선이 광주와 나주로 내려가 일본군의 해로를 통한 공격에 대비하는 총력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농민군은 결국 일본군과 관군에 연패하고 11월말 해산했다. 무장·고창·홍덕일대의 농민군 역시 대대적으로 봉기하였는데, 이들은 북상에 참여하지 않고 주로 손화중을 따라 남하하여 장성·나주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이 기간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문헌에 있다. 여기에는 9월재봉기에 참여한 이 일대 농민군 지도자의 이름과 그들이 이끈 농민군 숫자, 이들의 장성·함평·나주에서의 활동, 홍덕에서의 화약제조, 경군과 일본군의 주둔 및 토벌 활동, 세 관아의 동향 등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일대 농민군이 대거 남하하여 활동한 관계로, 고창일대의 상황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다.

「동학사(초고본)」(『총서』1, 482면)
「금영래찰」(『총서』4, 405면)
「갑오사기」(『총서』5, 42면)
「봉남일기」(『총서』7, 551-553면)
「순무선봉진등록」(『총서』14, 91, 95, 110-111, 156, 158, 188, 315면)
「양호우선봉일기」(『총서』15, 283, 300, 374, 377-385면)
「선봉진각읍료발판급감결」(『총서』16, 116, 221, 227, 237면)
「선봉진상순무사서」(『총서』16, 352면)
「이규태왕복서병묘지명」(『총서』16, 418, 433면)

『한국동학당봉기일건』(『총서』20, 328면)

『대판조일신문』(『총서』23, 109, 139면)

『해월신사』(『총서』28, 237-240면)

『주한일본공사관기록』권1, 154면

(7) 무장·고창·홍덕 농민군 지도자, 그 인물과 활동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는 전봉준·김개남·손화중이다. 하지만 최고지도자의 활동은 전라도 각 지역에서 농민군을 이끈 수많은 '중간층'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무장·고창·홍덕에도 많은 농민군 지도자가 있었다. 이들 모두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동학교단측 기록과 정부군의 토벌기록, 일본신문 등을 통해 그 이름과 활동을 어느정도는 복원할 수 있다. 이 지역 농민군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 문헌에 있다. 여기서는 세 곳을 나누고, 각각의 지도자 이름을 열거하였다. 다만 여기에는 더러 한 인물이 두 지역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변절한 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타지역 출신으로 이곳에서 활동한 자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들의 행적을 면밀히 추적하고 종합하면, 이 일대 농민혁명사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무장

『동학사(초고본)』(『총서』1, 433, 437면) : 강경중, 오지영, 고영숙

444면 : 송경찬, 강경중

457면 : 송경찬, 송문수, 송진호, 장두일, 강경중

482면 : 송경찬, 송문수 (강경중-청송역)

『순무선봉진등록』(『총서』14, 97면) : 송문수

241면 : 오응문

『양호우선봉일기』(『총서』15, 275-280면) : 추윤문

378면 : 김광오, 김문의, 박용삼, 문만조

380면 : 김경운

382-383면 : 김경운, 송진팔, 윤상은, 송군화, 최문학, 김자일, 김영심, 김웅백, 김재영, 송경창, 고순택, 임천서, 김순경, 김영래, 김일중, 이부겸, 송영석, 문연규, 강기수, 최순철, 오양신, 이남석, 선부길, 김성청, 강판성, 김덕녀, 이군서, 김계룡, 장두일, 조경순(이상 30명)

『선봉진상순무사서』(『총서』16, 277, 360면) : 송문수

『동학관련판결선고서』(『총서』18, 365면) : 고순택

『해월신사』(『총서』28, 237-240면) : 송문수, 강경중, 정백현, 송경찬, 송진호, 장두일

『동학도종역사』(『총서』29, 335면) : 송문수

『동학사』(『동학사상자료집』2, 111면) : 송경찬, 강경중

112면 : 정백현

113면 : 송문수, 송진호, 장두일, 곽창욱

134면 : 송경찬, 송문수, 강경중

「천도교회사 초고」(『동학사상자료집』1, 455면) : 송문수, 강경중, 정백현, 송경찬, 송진호

「牒呈」(규장각 26300) : 홍낙관, 홍맹철, 홍응관, 홍계관, 홍한섭

「중앙일보」 1965년 10월 30일자 및 11월 5일자 : 김홍섭

2) 고창

「동학사(초고본)」(『총서』1, 444면) : 오시영, 임형노

457면 : 임형노, 임천서, 오시영, 오하영, 홍낙관, 홍계관

482면 : 임천서, 임형노 (오시영, 오하영-영광)

525면 : 이증산(봉우), 강성지, 오시영

「갑오사기」(『총서』5, 42-43면) : 홍낙관

「김낙철역사」(『총서』7, 275면) : 홍계관

「봉남일기」(『총서』7, 551-553면) : 신정옥, 임천서, 홍낙관

554면 : 홍낙관

「순무선봉진등록」(『총서』14, 315면) : 유공선

「양호우선봉일기」(『총서』15, 377면) : 홍낙관

378면 : 김치삼, 남사규

382면 : 성두팔, 황정오, 황찬국

「이규태왕복서병묘지명」(『총서』16, 406면) : 홍낙관

「찰리전존안」(『총서』17, 152면) : 이봉우

「동학관련판결선고서」(『총서』18, 386면) : 홍낙관

「한국동학당봉기일건」(『총서』20, 334면) : 홍낙관, 고순택

「대판조일신문」(『총서』23, 167면) : 홍낙관, 고헌택

「대판매일신문」(『총서』23, 320면) : 홍낙관, 고순택

「해월신사」(『총서』28, 237-240면) : 오하영, 오시영, 임천서, 임형노

「동학사」(『동학사상자료집』2, 111면) : 오하영, 오시영, 임형노, 임천서

113면 : 홍낙관, 홍계관, 손여옥

134면 : 임천서, 임형노(오하영, 오시영-영광)

「천도교회사 초고」(『동학사상자료집』1, 455면) : 오하영, 오시영, 임천서, 임형노

477면 : 홍계관

「우편보지신문」 1895년 3월 6일자 : 홍낙관, 고헌택

「매매신문」 1895년 3월 3일자 : 홍낙관, 고순택

「주한일본공사관기록」(권2, 28면) : 이춘경, 이동술, 서재성

3) 흥덕

「동학사(초고본)」(『총서』1, 457면) : 고영숙

482면 : 고영숙

「봉남일기」(『총서』7, 551-553면) : 고영숙

「양호우선봉일기」(『총서』15, 275-280면) : 서상옥, 정무경, 고태국, 고성천, 이청용, 김도순, 이희풍

(정읍인 : 강윤언·신준식, 고부인 : 김태운·곽경순)

378면 : 이백오, 장여중, 이장술, 김치오, 신득용

「해월신사」(『총서』28, 237-240면) : 고영숙

「동학사」(『동학사상자료집』2, 111면) : 고영숙

135면 : 고영숙

(8) 그밖의 농민혁명 관련 기록

1) 무장 동학교도의 내각구성 문서

고창지역과 관련한 문헌자료 가운데, 무장 동학교도가 중심이 되어 조정의 내각까지 구성해놓은 문서가 있어 주목을 끈다. 여기에는 무장에 거주하는 오태원, 오계원, 김병일 등이 등장하는데 이들 앞에는 영의정, 좌의정 등의 관직명이 붙어있다.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인데, 그것이 작성된 시점이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른다.

「동학문서」=「Mutel문서」(『총서』5, 47-50면)

2) 고창·흥덕·무장지역 수성군

9월재봉기 이후 이 지역에서는 수성군(유회군)이 조직되었는데, 이들의 활동은 타지역에 비해 대단히 활발하였다. 수성군을 조직하고 참여한 이들의 이름과 활동내용은 다음의 문헌에 있다. 이 가운데 「거의록」과 「취의록」은 고창·흥덕·무장지역 수성군의 이름을 망라하고 있어, 그 자체로 농민혁명 당시 이 일대의 지배층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농민군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농민군 지도자와의 성분 비교 등) 이 지역 농민혁명의 특성을 밝히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거의록」(『총서』7, 89-144면)

「취의록」(『총서』7, 145-234면)

「순무선봉진등록」(『총서』14, 128, 181, 315면)

「양호우선봉일기」(『총서』15, 275-280면)

「선봉진상순무사서」(『총서』16, 359면)

「각군장졸성책」(『총서』17, 438면)

* 이밖에 그동안 고창지역에서 발간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고창군지』 「역사편」(고창군)

「전봉준은 고창 당촌 태생」(고창문화원 『향토사료』)

「무장은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고창문화원 『향토사료』)

(9) 농민혁명 이후의 동향

이 지역은 1894년 12월 이후 토벌군에 의해 심대한 타격을 받고도 1898년 英學黨 봉기에 이어 1899년에도 농민봉기가 일어나서 주목받는 곳이다. 이에 관한 기록으로는 다음이 있다. 이를 통해 농민혁명 이후의 무장·고창·홍덕일대의 동향을 살피고 그 특성을 타지역과 비교해보면, 이 지역 농민혁명의 성격이 보다 확실히 드러나리라 생각된다.

「한국전라도고부쪽동지건」(『총서』21, 311, 318, 322, 326-329, 340, 345, 347, 351, 355-363면)

「全羅南道高敞郡就捉亂黨口招同類姓名居住並錄成冊」

「全羅南道 高敞郡 捉得亂黨姓名罪目並錄成冊」

「사범품보」권2 133-136면, 권4 253-256면, 288-292면, 341-346면, 384-385면, 436면, 578-580면, 760-762면, 권5 50-51면, 256면, 306면

「황성신문」권2 98, 107, 118-119, 121-122, 131, 135, 185, 189, 307면)

「홍덕군난민취초사안」(규장각 17282 『중범공초』 9책중 9권)

: 해제, 「한말 영학당 이화삼 등 공초보고서」(신용하, 『한국학보』35)

(10) 발굴문헌

본 조사팀은 고창지역 농민혁명 관련기록을 발굴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고창·무장·홍덕일대를 답사하였다. 또한 전북대 도서관의 향토자료실에 있는 이 지역 관련 고문헌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찾은 자료는 다음과 같은데, 그 내용이 매우 단편적이어서 이 일대 농민혁명사를 복원하는데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 『沙南遺稿』(金基衡: 1841-1917, 字 在璿, 號 沙南, 本 商山, 茂長縣 長沙里 출생)

- 농민혁명 관련 詩 두편(「甲午東匪」, 「聞王師討平匪聞喜步杜子還鄉詩韻」) 및 「續行狀」

* 『欽齋文藁』(曹憲承: 1873-1960, 字 伯據, 號 欽齋, 本 昌山, 高敞縣 內鼎里 출생)

- 「金氏三綱旌閭記」: 농민군 창궐로 정려 건립 중단

* 『龍塢集』(鄭官源: 1857-1920, 字 明賢, 號 龍塢, 本 晉州, 茂長縣 大山面 梅山里 출생)

- 「龍塢先生鄭公行狀」 및 「龍塢處士鄭公墓碣銘」: 농민혁명 당시 무장현 유생들의 동향

* 『晉山世蹟』

- 「鳳巖公守重墓碣銘」: 高敞 雅山面 姜守重의 수성군 활동

* 晉州姜氏古文書 가운데 「高敞儒生 柳泳圭 等 上書文」: 고창 수성군 표창 건의

* 「중앙일보」 1965년 10월 30일자 및 11월 5일자

- 전봉준의 陣中수행원 金興燮(茂長縣 孔音面 新村里 출생) 기사

* 「東京日日新聞」, 「日本」, 「郵便報知新聞」, 「賣買新聞」 등 일본신문 : 앞의 각 항에 인용한 일본신문 가운데 「동경일일신문」 등은 『총서』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연구활동 중인 朴孟洙 교수가 발굴해서 조사팀에 보내준 것으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개된다.

이상에서 고창지역 농민혁명 관련 문헌자료를 소개하였다. 이 일대 농민혁명에 관한 자료는 중심지 역할을 한 곳에 걸맞게 많은 편이다. 그 가운데서도 3월봉기와 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자료는 어느 곳보다도 풍부하다. 또한 자료의 성격도 다양해서, 농민군 활동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지배세력의 구조와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단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전체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농민혁명 직전의 조직 및 동향·무장기포 등 농민혁명의 태동에 관한 자료, 9월재봉기 직전의 상황 이른바 집강소 기간에 관한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 기간의 활동은 모두 이 지역 농민혁명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것이어서 현지자료의 발굴이 절실하다. 이들 자료를 보강해서 농민혁명 이전부터 1899년 봉기까지, 그리고 농민군만이 아니라 수성군(지배세력)의 대응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그때 비로소 이 지역 농민혁명의 실상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2. 고창지역 농민군 지도자의 인물과 행적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데 있어 그 지도부의 성격과 지향을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농민혁명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대한 단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서는 그간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고창지역 농민군 지도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그리고 농민혁명기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가나다順). 현지조사가 가능했던 이들의 경우, 그 후손과 면담하고 관련 문건을 조사하여 밝혀진 내용들을 첨부하였다. 또한 1차 문헌자료에는 기록이 없으나 연구자들에 의해 농민군으로 활동한 사실이 조사된 인물도 소개하였다.

고창지역 농민군 지도자를 제시함에 있어, 옛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무장현·고창현·홍덕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살리는데 좀 더 유용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조사내용이 고창지역 농민군 지도자의 성분 및 지도부의 성격을 심도있게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 무장현

【姜敬重】

1892년 8월 무장 선운사 미륵비기 탈취사건 때 오지영·고영숙과 함께 주모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곧 무장 동학교도의 도움으로 탈옥하였고, 1893년 보은집회 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도 무장집주로 활약했다. 즉 그는 초창기부터 무장지역의 동학교단과 교도를 이끈 인물이다. 3월봉기 때 송경찬 등과 더불어 1,300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무장에서 일어난 이래, 9월재봉기까지 빠지

지 않고 활동하였다. 재봉기 때는 靑松驛에서 3,000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했다. 그의 인적사항은 전하지 않는다.

【高順宅】

1856-1895, 본 長興, 명 昶柱, 자 順宅, 공음면 당산 출신이다. 손화중포에 속하여 무장·고창일대에서 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12월에 체포되어 전봉준·홍낙관 등과 함께 서울 일본공사관으로 압송되었다. 1895년 3월 3일 법무아문에서 재판을 받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방면되었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정읍에서 다시 체포되었다 하며, 3월 30일 73명의 농민군과 함께 일본군에 의해 포살되었다. 그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1994년 5월 공음면에 추모비를 세웠다.

【郭昌旭】

3월봉기 때 송문수 등과 함께 무장 농민군 지도자로 봉기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 그의 인적사항 및 이후의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전하는 것이 없다.

【金丙云】

1843-1894, 본 淸道, 명 圭一, 자 子範, 下二面 壯岩里 출신이다. 무장일대에서 활동하다가 12월에 朴景錫·宋辰八 등 무장 농민군 지도자(‘賊魁’) 19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 중 박경석은 物故, 송진팔 등 18명은 영광으로 압송된데 비해, 유독 김병운 만은 12일경 효수된 것으로 보아,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창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1994년 5월 상하면에 있는 생가 마을 앞에 추모비를 세웠다.

【金興燮】

1874-1965, 본 金海, 명 興寬, 호 榮菴, 공음면 新村里 출신이다. 그에 관한 1차 문헌자료는 전하지 않으나, 일찌기 그를 취재한 신문기록(『중앙일보』, 1965년)이 있어 행적을 추적할 수 있다. 취재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홍섭의 부친 金聲七은 1893년 12월에 전봉준·손화중·정백현과 함께 송문수의 집에서 기포에 관한 모의를 벌였다. 94년 2월에는 공음면 신촌리 자신의 집에서 전봉준 외에 김개남·서인주·김덕명·임천서·강경중·고영숙 등이 더 참여한 가운데 기포를 구체화하였고, 3월 21일 기포에서부터 9월 재기포까지 출진했다. 김성칠의 아들 김홍섭은 기포한 직후부터 전주화약까지 전봉준의 陣中수행원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농민혁명이 좌절된 이후에는 부안 변산으로 도피했고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서당을 열어 생계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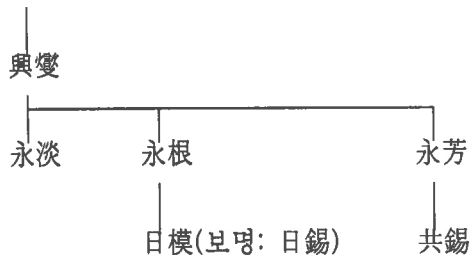
한편 김홍섭에 대해서는 후손들의 증언이 적지 않게 전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부께서 전봉준 수행원을 했다는 말씀을 어른들로부터 직접 들었다. 수행원하면서 신촌으로도 다니고 정읍으로도 다녔다고 한다. 증조부와 조부께서 천도교를 하셨고 책이나 문서도 많았었는데, 다 없앴다. 『중앙일보』 전북판에 실린 조부님 기사하고, 끝에 ‘大禮師’라는 큰 글씨가 쓰여 있는 책이 한 권 있다”(손자 金共錫씨, 1940년생, 무장면 원촌)

“조부님, 그분이 글이 좋아서 23세부터 훈학을 하셨다. 선친인 성철 어른이 지금으로 치면 (농민군) 중대장급을 하셨다. 다른 곳은 다 돌면서 식량도 조달하고 했는데 무장현만은 건드리지 않아서 동학군 다 잡아죽일 때 두 분은 살아남았다. 전봉준이 전남 어디 옥에 갇혀 있을 때 조부님이 찾아가서 면담까지 했다고 한다. 그 분이 기록한 일지 등이 있었는데, 그 분 생전에도 그랬지만 사후에 불태우거나 벽지로 사용해서 거의 없어졌다. 그런 것을 많이 보았다. 조부님이 쓰신 책 몇 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원갑 책력, 점서가 있다. 그 분 생시에 기자들이 찾아와서 신문에 두 번 실렸다. 두 분 모두 천도교하셨는데, 임종시 내게 부탁 말씀이 ‘꼭 그 교를 잊거라’ 했다. 그럴려고 했는데 못했다. 당신 묘자리 祝을 쓸 때, 본인이 宗法師라 쓰셨다. 축문이 내게 있다. 무장면 울곡리 울곡의 윤모씨가 (천도교) 무장면 책임자 였는데, 조부를 자주 찾아왔었다. 동생 집에 教旨도 있었다. 조부님은 ‘시천 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를 항상 외었다. 조부님은 공음면에 있는 초가집에서 기포했다. 그래서 손화중은 어디로 돌고 전봉준은 어디로 돌고 해서 전주에서 만나 전주를 점령했다고 하더라. 뒤에 전봉준의 비문 내용도 조부께 물었다고 한다”(손자 金日模씨, 1932년생, 경기도 화성)

김홍섭에 대한 취재내용과 후손의 증언에는, 고창지역 농민혁명과 관련하여 매우 새로운 사실들이 담겨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준비와 발발과정을 달리 써야할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러나 것처럼 중대한 내용과 인물임에도 이를 확인해주는 기록이 전혀 없는 이상,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다. 차후 엄밀한 확인작업이 있어야겠다.

<김홍섭의 가계>(『김해김씨대동보』)

聲七(1855-1901, 명 夏一, 호 粹菴)



【朴景錫】

1894년 12월 무장에서 김병운 등과 함께 체포되어 물고형을 치루었다는 기록만이 있을 뿐, 그의 인적사항 및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전하는 것이 없다.

【宋敬贊】

1893년 동학교단에서 보은집회 등 동학공인운동을 전개할 당시부터 무장의 접주로 활동한 인물이다. 3월봉기 때 강경중과 함께 1,300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하였으며, 9월재봉기 때는 송문수와 더불어 7,000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무장읍에서 봉기하였다. 그의 인적사항은 전하지 않는다.

【宋文洙】

무장지역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3월봉기 때 송경찬 등과 더불어 봉기하였다. 9월재봉기 때는 송경찬과 함께 7,000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무장읍에서 봉기했는데, 재봉기 이후에는 영광으로 내려가서 활동하다가 영광 弘農面의 李賢淑이 이끄는 民兵에게 10여명과 함께 체포되어, 12월 5일 영광에서 효수되었다.

그의 인적사항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현지조사에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송문수씨는 이 곳(공음면 구수)에 세거했다. 동학군들을 장사꾼처럼 변복시켜서 송문수씨가 몰래 훈련을 시켰는데, 현재 발상지 碑있는 곳의 왼쪽 뒷편이 연병장이다. 지금의 큰 도로위로 버드나무 10여그루가 있었고 그 밑에 모래밭이 있었는데, 약 500-600명이 쉴 수 있는 곳이었다. 위에서 큰 분이 오면 송문수씨가 일부러 난장을 터서 드러나지 않게 했다. 내 부친이 내가 국민학생일때 술병 하나 들고 가서 송문수씨의 묘지를 가르쳐 주어, 뒤에 나도 송문수씨 묘 벌초도 몇 번 했다. 묘는 잘려 서 울에 있고 몸체만 묻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송문수는 딸만 하나 있었는데, 장성으로 시집을 갔다. 그 딸이 밤에 와서 몰래 벌초하곤 했는데, 안온지 약 20년이 되었다. 송문수는 키가 9척이나 되고 수염을 길러 위압감이 있었고 엄격했다고 한다. 당산지역 훈련 총대장이었다고 하는데, 영광에서 잡혀 죽었다”(최재섭씨, 1945년생, 공음면 구암리 구수 563). 최재섭씨에 의하면, 송문수의 묘는 구수마을 맞은편에 있는 구암리 장동마을 전종근씨 집 뒷산 30미터 지점의 대밭 초입에 있다. 조사팀도 그 묘를 확인하였다.

【宋鎮浩】

3월봉기 때 송문수 등과 함께 봉기한 지도자이다. 동학교단측의 거의 모든 자료에 3월봉기 때 무장 지도자로 나오는데, 9월재봉기 때의 지도자 명단에는 어디에도 없다. 그의 인적사항 및 3월봉기 이후의 행적은 전혀 알 수 없다.

【梁相集】

冬音峙面 新垈里 출신이다. 그의 농민군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전하는 것이 없고, 다만 1895년 1월 16일에 체포되었다는 기록만이 있다. 그러나 그는 곧 풀려났는데, 이는 그가 1899년 농민봉기에 참여했다가 체포된데서 알 수 있다.

【吳應文】

長才面 南溪里 출신이다. 1894년 10월 영광 도내면 고성리 출신의 徐佑順(함평의 동학거괴 李化辰과 姨從間)에게 동학을 포교한 인물로, 무장일대 농민군이 9월재봉기 때 영광 등지에서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나 그밖의 내용은 알 수 없다.

【張斗一】

3월봉기 때 송문수 등과 함께 봉기한 지도자이다. 송진호와 마찬가지로 동학교단측의 거의 모든 자료에 3월봉기 때 무장 지도자로 나오는데, 9월재봉기 때의 지도자 명단에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1895년 3월 30일 일본군에게 포살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는 재봉기 때에도 지도자로 활약했음이 분명하다.

【鄭伯賢】

1869-1920, 본 晉州, 호 眞菴 자 伯賢, 휘 根永, 공음면 예전리 상례마을 출신이다. 그는 3월에 농민군이 고부 백산에서 군진과 지휘체계를 갖추는 때, 전봉준의 妻 7寸으로 뒷날 전주대도소 都執綱으로 활약하는 宋熹玉과 함께 전봉준의 秘書가 된 인물로 유명하다. 그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담은 1차 문헌자료는 없으나, 그에 대한 후손의 자세한 증언이 전한다(증언 내용은 『鄭伯賢 서울 日記』 참조). 그는 농민혁명 이후 무장·고창일대를 전전하며 몸을 숨기다가, 1895년 서울로 도피하여 1897년에 낙향했다. 서울에 머물 때의 행적을 적은 『진암전문록』을 남겼으나, 여기에도 농민군 활동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秋允文】

무장 沙器店(동음치면 두암리 사기동 : 당시 손화중의 小家가 있던 곳) 출신의 접주이다. 관기록에 따르면, 그는 '홍덕과 고부 사이에서 활동했는데, 평민을 침탈한 것이 극심했으며 손화중의 심복'이었다. 12월에 홍덕에서 민병에게 체포·처형되었다.

--- 그밖의 무장 농민군 지도자 및 농민군 ---

金光五, 金文儀, 朴用三, 文萬祚는 1894년 12월 19일에 무장에서 일본군과 관군에게 체포된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체포 당시 '巨魁'로 칭해졌으나, 행적은 불명하다.

다음은 1894년 11월말부터 행해진 일본군과 관군·민병의 토벌작전 때 체포되어, 이듬해 3월 30일 일본군에게 포살된 무장의 농민군 지도자들이다. 방면되지 않고 포살된 것으로 볼 때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인물들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순택·장두일·임천서를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인적사항 및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간의 상호관계를 알 수 없거니와 그 직책은 과대평가된 면이 많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자료를 이용할 때는 주의와 고증이 필요하다.

<1895년 3월 30일 일본군에게 포살된 무장의 농민군 지도자 직책과 명단>

大接主 金永心 宋景昌 高順宅 林千西 金順京 金永來 姜基秀 崔順七 李君瑞 金桂龍 張斗一
趙景順

接主 宋君化 崔文學 金子一 文連奎 金成靑 金德汝

魁首 姜判成

都執綱 金景云(* 김경운은 12월 5일경 체포되어, '행패가 극악했다'는 명분하에 바로 효수되

있다는 또다른 관기록이 있다)

都省察 金應伯 李南石 宣夫吉
接司 吳良臣
砲士大將 尹相殷
舊道人行悖 宋鎮八 金在英 金一仲 李富兼 宋永石

金有卜 : ‘최경선의 마부로서 무장에 있을 때 민간에 횡포가 심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2월 28일 광주에서 체포되었다(『순무선봉진등록』, 『충서』14, 335면).

黃化性 : 본 창원, 공음면 多玉洞 출신으로, 3월봉기에 참여했다가 5월 3일 완산전투 때에 사망하였다. 그에 관한 1차 문헌기록은 없다(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273면).

裴煥廷 : 1864-1922, 본 달성, 자 想三, 호 南溪. 무장에서 활동하다가 영광에서 체포되었고, 뒤에 방면되었다고 한다. 그에 관한 1차 문헌기록은 없다(『다시피는 녹두꽃』, 48-52면).

文德中 : 1856-?, 본 남평, 공음면 閒沙洞 출신이다. 순화중포에 속하여 무장에서 활동하다가 12월 27일에 체포·포살당했다고 한다. 그에 관한 1차 문헌기록은 없다.(『갑오동학혁명사』, 263면; 『다시피는 녹두꽃』, 41-47면).

崔敬七 : 1861-1946, 본명 貴煥, 자 敬七, 호 月浦. 3월봉기 이래 농민군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에 관한 1차 문헌기록은 없다(『다시피는 녹두꽃』, 63-66면).

(2) 고창현

【姜成之】

1841-1905, 본 晉州, 휘 守重, 자 成之, 호 鳳巖, 大雅面 甲坪里(현 아산면 상갑리) 출신이다. 오지영은 『동학사(초고본)』에서 “(강성지는) 고창의 토호로서 갑오년 봄에 그의 생명을 구할하기 위해 동학에 입도하여 접주의 임과 집강의 직에 있으면서 동학의 세력을 많이 부리던 자이다. 동학당의 패함을 보고 다시 수성장이 되어 동학당을 무수히 잡아죽인 자이다”고 했다.

여기서 수성군이란 고창·홍덕의 수성군을 말하는데, 그 조직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9월 9일 姜泳重(홍덕현 二西面 龍山里; 현 富安面 용산리)의 주도로 聚義通文이 작성되었고, 11월 15일 홍덕현 감 尹錫禎의 허락으로 창의소 활동이 시작되었다. 윤석진이 순무선봉장에게 보고하여, 12월 선봉장의 지시에 따라 수성군 편제가 이루어졌다. 이 수성군의 핵심인물이 강영중과 그의 三從兄 강수중이다. 즉 강수중은 고창 유희군 수창자로서, 농민군이 패배하던 무렵부터 유희군 조직에 간여하였고, 이후 농민군을 많이 토벌하였다. 따라서 농민군 토벌에 관한 오지영의 기록은 사실이다. 하지만 강성지의

동학 입도 및 집강역임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창지역 수성군의 핵심인물이었던 만큼, 그의 농민군 활동여부에 대해서는 엄밀한 고증이 필요하다. 한편 그는 1899년 농민봉기 때에도 홍덕현 감 鄭崙永과 함께 義盟을 만들어 守城 활동을 하였다.

강영중에 대해서는 “부안면 용산리의 최씨가 妻家여서 용산에 가서 살았다. 딸만 있다가 절손되었다”는 증언(姜亨熙씨, 1933년생, 아산면 상갑리 107)이 전한다.

【申正玉】

신정옥은 ‘高敞接主’로 칭해졌던 인물인데, 9월재봉기 이후의 행적만 확인된다. 장성 유생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10월중순 이후 장성으로 내려와 개천시, 단암 등에 진을 쳤다. 10월 28일에는 장성에서 점심 400백상을 대접받고 저녁에 황룡시로 이진했다가, ‘많은 倭船이 범성포에 당도한다’는 급한 기별을 손화중으로부터 받고 29일에 월평 都所를 떠났다. 그리고 11월 15일부터는 황룡시에 도소를 세우고 各面 各里에서 쌀을 강제로 거두어 들여 백성들로부터 큰 원망을 샀다”고 한다. 이로 보면 그는 9월재봉기 때 상당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임에 틀림없으나, 그 인적사항 및 이후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吳時泳·吳河泳 형제】

본 海州, 무장 德林里에서 출생하여 1881년에 고창읍 고촌으로 이주하였다. 『동학사』의 저자 오지영의 형이다. 오시형은 1893년 동학교단에서 보은집회 등 동학공인운동을 전개할 당시부터 임형노와 함께 고창의 접주로 활동하던 인물이다. 이들 형제는 3월봉기 때 임형노 등과 함께 1,500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하였으며, 9월재봉기 때는 8,000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고창이 아닌 영광에서 봉기하였다. 이 가운데 오시영은 이 해 겨울에 영광에서 민병을 일으킨 이현숙에게 체포되어 관군에게 넘겨졌다.

【柳公先】

손화중의 妻甥으로, 관기록에 ‘高敞魁首’로 나온다. 관기록에 따르면, 그는 “작폐가 극심했는데, 여름 이래로 그 무리를 거느리고 인접 각읍을 횡행하며 포를 쓰고 주뢰와 구타를 일삼고 무고한 백성의 집을 뒤졌으며, 10월에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큰 깃발을 세우고 나주길로 가서 장성을 겁탈했다”고 한다. 12월경 홍덕 수성군에 체포되었다.

【李鳳宇】

오지영은 『동학사(초고본)』에서 “(이봉우는) 본래 서울에 있던 자로서 갑오년 봄에 고창읍에 들어와 손화중의 부하가 되었던 자이다. 갑오년 겨울에 이르러 義軍의 패함을 보고 관병에게 附和하여 그 두령 손화중을 잡아주고 甌山군수를 얻어한 자이다”고 했다. 이 지역에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그는 富安面 鞍峴里 李某씨의 제실직으로 있었는데, 농민군이 패한 뒤 손화중이 그곳으로 은신해오자 밀고하여 체포케한 공으로 증산군수를 얻었다고 한다.

그가 손화중을 체포케 한 공으로 증산군수가 된 사실은 관기록에도 나온다. 그러나 동학입도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손화중이 체포된 곳은, 관기록에 ‘古阜郡 扶安面(현 고창군 富安面) 壽江山 山堂’으로 나와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면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

【 李春京·李同述·徐在成 】

이춘경은 고창현의 都使令으로서, 관아 업무에 종사하는 가운데 제반업무를 농민군에게 비밀리에 전달하다가 4월에 홍계훈에게 체포되었다. 같은 시기 고창의 이동술과 서재성은 농민군으로 활동하다가 홍계훈의 조사에 걸려 체포되어, 이경춘과 함께 처벌되었다. 이들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다.

【 林天瑞 】

3월봉기 때 오시영 형제 등과 함께 1,500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하였으며, 9월재봉기 때는 임천서와 함께 5,000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고창읍에서 봉기하였다. 11월에 함평으로 내려가 활동하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어, 1895년 3월 30일 무장에서 일본군에게 포살되었다. 그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다.

【 林亨老 】

1893년 동학교단에서 보은집회 등 동학공인운동을 전개할 당시부터 오시영 형제와 더불어 고창의 접주로 활동하던 인물이다. 그는 3월봉기 때 오시영 형제·임천서 등과 함께 1,500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하였으며, 9월재봉기 때는 임천서와 함께 5,000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고창읍에서 봉기하였다. 그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다.

【 洪樂寬(觀)과 그 一家 】

홍낙관(1850-?)은 고창지역을 대표하는 농민군 지도자이다. 3월봉기 때 오시영 형제·임형노·자신의 동생 洪桂寬(季觀)과 함께 고창에서 봉기하였다. 관기록인 『첩정』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匪魁 洪낙관은 본래 才人으로써, 스스로 大成 首接主라 칭하였다. 그 아버지 孟哲은 先鋒大將, 그 동생 應觀과 季觀, 從弟 汗觀은 각각 接主라 칭하였다. 갑오년 3월 무장 新村(무장현 二東面 신촌; 현 무장면 신촌리) 등지에서 기포하여 백산·황룡·전주성전투를 거쳐 고부·고창·무장·남평 등읍의 군기를 취하였다. 倡優·巫夫의 무리가 모두 그 黨에 들어갔고 또 屠漢輩들을 불러모아 接을 이루었는데, 그 세력이 크게 된 후에는 양반·평민도 마구 몰아넣어 10만 대군을 이루었다. 모든 우두머리 가운데 으뜸을 칭했고, 매번 손화중의 선봉이 되었다.”

그는 우금치에서 패배한 이후인 11월말경에 홍덕 고영숙이 이끄는 농민군과 함께 나주·장성일대를 휩쓸었다. 마침내 12월 9일 홍덕현 林里에서 관군과 土兵에게 체포, 일본군진에 넘겨졌으며, 1895년 1월 4일 전봉준·최경선 등과 함께 서울 일본공사관으로 압송되었다. 3월 법무아문에서 재판을 받고 ‘杖100대, 삼천리박 유배’에 처해졌다. 언제 풀려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1899년 농민봉기에 또다시 가담한 것으로 나온다.

한편 홍계관은 3월봉기로부터 그의 형과 활동을 같이 해왔는데, 농민혁명 이후에도 체포되지 않았다. 그는 1896년 8월에 '최익서 등 호남도인 7인과 함께 해월 최시형을 찾아가 九大接을 設包할 것'을 건의하는 등 재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관으로부터 또다시 지목당할 것을 우려한 최시형이 거절함으로써, 그의 뜻은 무위로 돌아갔다. 그는 1899년 농민봉기에 주도자로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다.

홍낙관의 경우, 이이화·최현식 등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언급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친데다 그 일가 전체의 행적을 추적한 경우는 없다. 홍낙관 일가는 고창 농민혁명을 이해하는데 있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상인데, 사실 이들의 출신지조차 분명치 않다. 『첩정』에서, '홍낙관 등이 무장 신촌에서 봉기했다'한 것에 근거하여 무장 신촌리 일대를 조사했고, 홍낙관 혼자가 아니라 그 형제 등 적지 않은 일가가 참여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당시 무장현의 홍씨 집성촌인 공음면 두암리 송운동을 조사했다. 그러나 홍낙관 등의 출신과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확인된 것이 없다. 그의 출신과 관련해서는 '서울출신으로서 농민혁명이 있기 얼마전에 고창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崔西仲】

손화중포의 起包將으로서, 여러지역을 돌아다니며 활동하다가 12월말 광주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마부인 禹福泉이 '고창에 있을때 평민 수탈이 많았다'고 한 점에 비추어, 최서중의 주요 활동지역은 고창이었다고 판단되나 그밖의 내용은 알 수 없다.

--- 그밖의 고창 농민군 지도자 및 농민군 ---

金致三, 南士奎는 1894년 12월 20일 일본군과 관군에게 고창에서 체포된 지도자이다. 이들은 체포 당시 '巨魁'로 칭해졌으나, 행적은 불명하다.

1894년 11월말부터 행해진 일본군과 관군·민병의 토벌작전 때 체포되어, 이듬해 3월 30일 일본군에게 포살된 고창의 농민군 지도자들로는 書寫 成斗八, 黃正五, 黃贊菊이 있다.

金琇炳 : 1860-1894, 본 金海, 자 秀福, 호 雲齋, 고창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894년 12월 6일 처형되었다. 그에 관한 1차 문헌기록은 없다(『다시피는 녹두꽃』, 31-34면).

金洋斗 : 1845-1895, 본 金海, 자 士益, 고창출신으로 나주일대로 내려가 활동하다가 1895년 1월 5일 나주에서 처형되었다. 그에 관한 1차 문헌기록은 없다(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265면; 『다시피는 녹두꽃』, 35-40면).

(3) 홍덕현

【高永叔】

1867-1894, 본 長興, 명 濟中, 자 永叔, 星內面 龍橋里 교동(다리골) 출신이다. 그는 초창기부터 홍덕지역의 동학교단과 교도를 이끈 인물이자 홍덕의 대표적인 농민군 지도자이다. 그는 1892년 8월 선운사 미륵비기 탈취사건 때 오지영·강경중과 함께 주모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가, 곧 무장일대 동학교도의 도움으로 탈옥하였다. 3월봉기 때 700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홍덕에서 일어난 이래 9월 재봉기까지 빠지지 않고 활동하였다. 9월재봉기 때 홍덕에서 2,000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했으며, 11월에는 고창의 농민군을 이끄는 홍낙관과 힘을 합쳐 장성·나주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손화중의 사촌동생인 孫益仲 등과 함께 정읍에서 체포되어, 12월 26일 통위영군에게 처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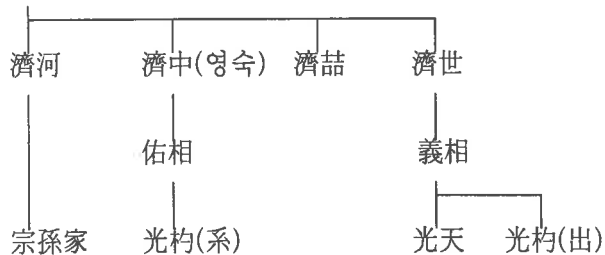
고영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언이 전한다.

“고영숙은 전봉준의 참모를 했다가 25세에 요절했다. 효수되었다. 손이 없어서 양자를 들여 대를 이었다”(고광택씨, 1942년생, 고영숙의 방손).

“시조부가 동학 때 죽게 된 사람을 살려준 적이 있는데, 뒤에 그 친구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 홍덕현 감이 잡아 죽였다. 시조부는 지금보다 더 크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종손 집에서 모른채 해버려서 더는 빛이 안난다”(김행순씨, 1928년생, 고영숙의 손부, 용교리 29번지).

<고영숙의 가계> (『장흥고씨족보』, 1934년; 1966년간)

漢紀



고제중(영숙)·제철·제세 형제는, 홍덕현 장흥고씨의 종손인 제하와 이복형제이다. 현지조사 중에 만난 장흥고씨들도 고영숙이 삼형제였다고 말했다. 또한 용교리 일대에서 가장 세력있는 집안의 종손가에 태어난 고영숙이 농민군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족보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겠지만,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영숙은 혈통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든다. 그의 성분, 동학입도 동기 등과 관련하여 좀 더 주목해볼 문제다.

【高成天】

二東面 內玉里 출신이다. 그는 “東徒의 私接으로, 여름 이후로 평민과 船商의 재물과 곡식을 빼앗은 것이 많았으며, 10월에 군대를 거느리고 나주로 가면서 先鋒을 칭했다”고 하며, 12월에 정읍 서남

촌의 강윤언·고부 하오산의 김태운·무장 사기점의 추윤문(무장현편 참조) 등과 함께 홍덕 장리 및 민병에게 체포·처형되었다..

【高泰國】

二東面 橋洞 출신으로, '홍덕대접주'로 칭해졌다. 그와 그 휘하의 농민군은, “요호부민의 錢穀을 빼앗은 것이 많았으며, 9월에는 백성들에게서 2,600여냥을 강제로 거두어 화약제조 시설을 만들었다. 10월 18일에는 나주성을 함락한다며 그 무리 수백명을 이끌고 광주로 갔다가 도망하였다”고 한다. 홍덕에 몸을 숨기고 있던 중, 12월 13일밤 홍덕좌수 김병규의 고발로 체포되어 당일 효수되었다.

【金道順】

二南面 海川 출신이다. 그는 “才人으로서 접주를 지냈는데, 그 무리를 이끌고 양반들을 포박·구타하고 노략질한 것이 심했다”고 하며, 12월에 홍덕 수성군과 민병에게 체포되어 공개 처형되었다.

【徐相玉·鄭武京】

서상옥은 二東面 隱洞, 정무경은 一西面 眞木亭 출신이다. 이 두사람은 모두 “한 무리의 농민군을 이끌던 魁首로, 평민을 침탈하고 재곡을 빼앗기가 부지기수”였다 하며, 9월재봉기 때에 군대를 일으켜 나주로 내려갔다가 홍덕으로 돌아왔다. 둘 다 12월에 홍덕의 장리 등에 의해 체포되어 공개 처형되었다.

【李靑用】

縣內面 峙里 출신이다. 그는 “동학 私接의 魁首로, 義兵大將을 자칭하며 읍촌을 횡행하며 백성들의 재곡을 약탈하였다”고 한다. 12월에 홍덕 수성군과 민병에게 체포되어 공개 처형되었다.

【李希豊】

二西面 沙川 출신이다. 그는 “동학 私接의 魁首로, 고부·장성·전주 전투 등에 모두 참여했고, 원평에서는 왕명을 받는 宣傳官을 살해”한 인물이다. 12월에 홍덕 수성군과 민병에게 체포되어 공개 처형되었다.

--- 그밖의 홍덕 농민군 지도자 ---

李伯五, 張汝中, 李長述, 金致五, 申得用은 1894년 12월 21일 일본군과 관군에게 홍덕에서 체포된 지도자이다. 이들은 체포 당시 ‘巨魁’로 칭해졌으나, 행적은 불명하다.

徐相殷 : 1869-1894, 자 玉汝, 호 松菴, 星內面 隱洞 출신이다. 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던 중 12월 11일 홍덕에서 통위영군에게 처형되었다. 그에 관한 1차 문헌기록은 없다(최현식, 『갑오동학혁명

사』, 269면).

이하 4인은 다른 지역 출신으로 홍덕에서 활동한 농민군 지도자이다.

姜允彦 : 정읍 西南村 출신이다. 그는 “홍덕 경내를 돌아다니며 요호부민과 동학에 입도하지 않는 백성들을 주리틀고 집을 불사르고 재산을 약탈했다”고 하며, 12월에 홍덕에서 처형되었다.

申俊植 : 정읍 출신으로, ‘接司’의 직책을 맡았다. 그는 “홍덕현에 있는 明禮宮畓의 賭租 50여석을 임의로 방매”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 12월 홍덕에서 처형되었다.

金太云 : 고부 下五山 출신이다. 그는 “열읍을 횡행하며 악형과 토색질을 일삼았다”고 하며, 9월재봉기 이후 “‘防禦兵船’이라 칭하고 무리를 이끌어 바다 입구(海口)에 둔취”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 12월 홍덕에서 처형되었다.

郭京順 : 고부 출신이다. 그는 “私接의 魁首로, 홍덕의 이회풍을 따르며 민간을 심하게 약탈했다”고 하며, 12월 홍덕에서 처형되었다.

지금까지 고창지역 농민군 지도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은 고창 농민군 지도자들을 가능한대로 많이 찾아내고 그들의 인적사항과 행적을 정리·소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이 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 동기나 성분 등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기초조사로 고창 농민군 지도자들이 집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 곳 농민혁명의 전개양상을 어느정도 복원할 수 있는 내용들도 모아졌다. 예컨대 홍덕현은 농민혁명 전개양상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으나, 이 곳의 지도자와 그 행적을 찾는 과정에서 이를 복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밝혀졌다.

이같은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추후 농민군 지도자를 하나씩 사례 분석한다면, 곧 고창지역 농민군 지도자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

■첨부 1.

高敞·興德 守城廳 座目

□興德 守城廳 座目

知縣事：尹錫禎

都領將巡撫營別軍官：前監察 愼宗寬

左副將巡撫營別軍官：幼學 姜泳重

右副將：進士 李秉光

籌劃員巡撫營別軍官：進士 金商煥

都察員：幼學 黃在鎭

副察員：幼學 白樂鉉

左參謀：幼學 曹衡承

右參謀：幼學 高龍鎭

別參謀：幼學 李麟洙

別參謀巡撫營別軍官：幼學 崔榮涉

中軍巡撫營別軍官：前僉使 朴來敏

別將：前監察 朴來衍, 前五衛將 陳常奎

舉行刑吏：金仁淳, 鞠鎬宣

義穀將：時任座首 金柄奎 - 色吏 金寬淳

掌財：前都事 高濟棹, 幼學 李秉鍾, 幼學 金成吾 - 色吏 朴彰鍾, 書史 白南斑

都護將招討營別軍官：幼學 朴胤和

討捕左先鋒：幼學 宋觀洙

討捕右先鋒：出身 柳熙甲

都搜捕將：前都正 蔡斗永

副搜捕將：幼學 金台鎬

別搜捕將：金在九 - 書史 閒良 朴洞鍾, 鞠鎬民

左領率：閒良 朴泰駟

右領率：閒良 鞠萬孝

都察刑吏：朴殷鍾, 朴燿鍾

火砲別將：閒良 朴萬鎭

一隊長：閒良 陳仁喆

二隊長：閒良 陳鴻相

三隊長：出身 姜八宗

將校：孫仁權, 張奉坤, 承永浩, 李守卜
守城廳都舉行直：李太平, 尹福巖

□ 高敞 守城廳 座目

知縣事：金星圭
守城將巡撫營招討營別軍官：幼學 姜守重
左副將巡撫營別軍官：幼學 李錫九
右副將：幼學 金相烈
別將巡撫營招討營別軍官：前監察 殷壽龍
參謀巡撫營別軍官：進士 金榮喆
義穀將召募營別軍官：幼學 金箕殷
書史：幼學 柳光熙, 幼學 李炳鶴
掌財：幼學 曹衆坤, 幼學 柳章圭, 前僉使 吳然淑, 行首 閒良 申舜卿
執事：前刑吏 尹獎權
禁亂：閒良 裴成煥, 閒良 丁士孝
把守執事：閒良 殷道烈
火砲別將：閒良 朴鍵夏

■ 첨부 2.

1898년과 1899년 농민봉기와 고창지역 인물

* 1898년 농민봉기 관련자

(근거 : 『興德郡亂民取調査案』 규장각 17282, 9책 중 9권)

李化三(39세) : 봉기 주도자, 公州 薪野里 출신, 서울 학부주사, 1896년 4월 둔토세를 포함한 일로 고부군에 구속, 석방후 흥덕 北面 中南塘里의 同宗 李之白家에 머무(이지백: 1898년 봄 양사재 장의로 있다가 교체).

李二先(31세) : 이화삼의 족인, 갑오년에 湖西등지에서 동학접주로 활동하다가 도피, 執事.

李卜煥(32세) : 이지백의 아들.

丁桂述(27세) : 北面 新興里 거주, 22세, 童蒙, 자칭 壯士. 하남당에서 雇傭 생활.

朴其守(42세) : 고부인, 1895년부터 송민수의 마을에서 고용 생활.

蔡其燁(41세) : 외남당리 上邊家, 주점 운영.

宋敏洙 : 북면 외남당 거주, 7월에 북면 訓任으로 있던 중 戶錢 문제로 교체, 체포, 도주.

李進士 : 칠성동 거주.

崔周白 : 一東面 冠井里 거주, 吏屬과 訟事.

安士有 : 최주백 등과 함께 활동

徐云益 : 최주백 등과 함께 활동

李成道 : 이지백의 동생

* 1899년 농민봉기 관련 체포자

(근거 : ①『全羅南道 高敞郡 就捉亂黨口招同類姓名居住並錄成冊』

②『全羅南道 高敞郡 被捉亂黨口招同類姓名居住並錄成冊』)

아래 내용 중 ()은 ②에 근거

李化西 : 흥덕 後浦

徐興西 : 흥덕 菊峴

金在明 : 흥덕 用水洞 巨魁(頭目)

崔致洪 : 흥덕 卵山市 거괴(두목)

朴道西 : 흥덕 菊峴

吳在明 : 흥덕 卵山市(糞洞)

金生水 : 흥덕 書堂村

玄在水 : 흥덕 卵山市

金眞玉 : 흥덕 旺林 下初村

趙正化 : 흥덕 隱洞 (砲土)

李化汝 : 무장 沙器店

李興安 : 무장 沙器店

梁莫同 : 무장 沙器店

成在明 : 무장 新大 거괴

成在明 弟 : 무장 新大

宋允京 : 무장 廣成里

崔學權 : 무장 心元書堂

嚴周必 : 무장 心元書堂

黃必中 : 무장 青松

李萬春 : 무장 沙店

表光烈 : 무장 沙店

梁尙集 : 무장 新大

徐景(京)老 : 무장 沙店

嚴興三 : 무장 沙店

金相大 : 고창 邑內

金英三 : 고창 邑內

宋允中 : 고창 堤內

徐土手 : 고창 水月

洪成祚 : 고창 九星

李哥 名不知 : 고창 九星

朴永集 : 고창 水月

洪洛寬 : 居住不知 거괴

洪桂寬 : 거주부지 거괴

(金道玄 : 고창 卵山市)

* 1899년 농민봉기 관련 사망자

(근거 : 『全羅南道 高敞郡 捉得亂黨姓名罪目並錄成冊』 ;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玄在西 : 고창 산내면 출신, 봉기 중 전사.

全莫同 : 무장면 沙店 출신, 고창에서 옥사.

金俊玉 : 고창 雅山面 九岩里 출신, 고창에서 옥사.

田成淑 : 무장면 沙店 출신, 갑오 동비, 고창에서 옥사.

趙再用 : 고창 水月里 출신, 고창에서 옥사

嚴興三 : 고창 아산면 구암리 출신, 고창에서 옥사

趙判用 : 고창 堤內里 출신, 고창에서 옥사

동학농민혁명 정신 및 유적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제언

원도연(전북대 사회학과 · 문화저널 편집장)

1. 지방사 연구의 의의
2.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고창지방 농민군의 활동
3. 고창지방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현황
4. 동학농민혁명과 지역적 계승을 위한 제언
5. 맺음말

1. 지방사 연구의 의의

1994년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기점으로 활성화된 농민혁명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다. 첫째, 주로 1, 2차 농민봉기를 중심으로 그 진행과정을 정리하는 것, 둘째, 동학농민혁명기 지도자들의 사회적 성격과 그들의 사상에 대한 연구, 셋째, 농민혁명기 향촌사회의 동향에 관한 연구 등이다.¹⁾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그 성과에 바탕해서 동학농민혁명은 나름대로 훌륭하게 복권되었다. 분명히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전체사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주제인 것이다.

물론 '지방'이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영향과 변동의 과정에서 독자적인 단위일 수는 없으며, 지방사는 그 지방이 속한 국가의 역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²⁾ 그러나 지방사는 전체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매개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 역사를 구조적 산물이면서 동시에 인간행위의 산물이라고 했을 때 혹은 보편과 특수 관계속에서 상정되는

1) 박찬승, 「1894년 농민전쟁기 호남지방 농민군의 동향」,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1995. 새길. 43쪽.

2) 여기서 지방사란 'local study'의 의미를 갖는다. 지방사는 향토사에 비해서 좀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접근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지역사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생활의 단위가 강조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현재 학계에서 사용되는 지역사의 의미는 범세계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일련의 상호작용이라고 본다면 지방사는 전체사를 더욱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제한된 공간속에서 주어진 조건과 인물들의 활동을 상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구조와 제도가 개개인의 행위와 의식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의식이 어떻게 사건과 집단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를 지방사는 더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2.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고창지방 농민군의 활동

(1) 고부봉기의 실패와 무장기포

1894년 3월 고부봉기가 안핵사 이용태의 폭압적인 보복과 탄압에 밀려 사실상 와해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박원명의 회유와 설득에 의해 일단 해산했던 고부의 농민군은 이용태의 잔인한 탄압끝에 완전히 기세를 잃었고, 전봉준은 심복 수십명과 함께 무장으로 피신하여 후일을 도모했다. 무장은 이미 동학 대접주 손화중이 크게 세력을 떨치고 있던 곳이었으며, 전봉준이 굳이 이곳으로 피신했던 것은 나름대로 분명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일을 『석남역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³⁾ “그후 장터로 도로와서 해산을 한후 전대장은 본시 동학민도 부하 수십명을 영솔하고 부지거처(不知去處)에 헤어졌다”

고부를 떠난 전봉준과 그의 휘하들은 어디로 숨어들었을까. 『석남역사』는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4월 초이일에 동학군이 무장(茂長) 임내(林內) 안 산골 속에서 취중(聚衆)하와 무장 고창 고부 삼사군을 위성하여 군기를 탈취해 가지고 말목 예동으로 행진을 하와 백산으로 이진을 하고 있다.” 즉 고부에서 사라졌던 전봉준 등은 무장에서 기포했고, 이것이 바로 유명한 무장기포이다.⁴⁾ 그렇다면 무슨 까닭으로 전봉준은 무장으로 피신했으며 어떤 근거에서 무장에서의 창의를 실행했을까.

무장은 오늘날 고창군의 한 면(面)으로 전략했지만 당시에는 고창 흥덕 등과 함께 전라도 53개 군현중의 하나였다. 이곳 무장에서의 기포를 인용하 교수는 손화중포의 규모와 영향력 그리고 순화중과 전봉준의 각별한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고창지방의 향토사학자이자 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 부회장인 배인수씨는 좀더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⁵⁾ 첫째, 구수마을 앞을 흐르는 구수천(九水川)은 구적산(九笛山)의 아홉계곡에서 흐르는 많은 냇물이 마을 앞에 토사를 운반하여 축적함으로써 구수마을 앞에 넓은 광장이 조성되었고, 이 광장은 천혜의 훈련장으로서 동학농민혁명군을 훈련하는데 적합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천안전씨 문효공파(文孝公派) 후손 100여세대가 바

3) 『석남역사』(石南歷史)는 전봉준의 거주지였던 조소리와 지척인 현 정읍군 이평면 장내리 석지마을에서 한평생을 보냈고, 어린 시절 전봉준으로부터 직접 천자문을 배웠던 박문규(1879-1955)가 남긴 자필 회고문으로 1994년 발굴 공개되었다.

4) 『석남역사』에서 밝히고 있는 4월 2일이라는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 전봉준 등이 무장에서 기포한 것은 3월 20일이 거의 확실하고, 백산으로 이진하여 격문을 발한 것은 3월 25일로 추정되고 있다. 김은정 외, 『동학농민혁명 100년』, 1995. 나남출판. 508쪽.

5) 배인수,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九水마을'에 관한 고찰에서 인용.

로 가까운 구적산 옆 신대리(新垓里) 구정동(九井洞) 일대에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어서, 동학농민혁명의 거점으로서 혁명에 관한 모의와 계획을 은밀히 수립할 수 있었다. 셋째 군량미와 물자조달에 편리한 지역이다. 구수마을에서 약 300여미터 떨어진 인근 석교(石橋)마을에 세창(稅倉)이 있었으므로 군량미 조달이 용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이곳은 교통의 요지로, 지리적으로 정읍·고부·전주와 영광·장성·나주가 가까운 위치에 있다. 또 육상교통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도 편리했다. 당시 해수(海水)가 구수마을 앞까지 올라왔으며 육수(陸水)와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마을 옆까지 배(선박)가 올라왔으며 300여미터 거리의 석교마을까지는 매일 선박이 출입하였다. 샘목포(浦)가 4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번창했으며 범성포도 가까운 거리이다.⁶⁾ 끝으로 전봉준 장군은 구수마을에서 1,000미터(직선거리) 떨어진 왕제산(弧山峰;여시피)에 4월 9일 설진하여 전열을 재정비하고 주류(駐留)하였다가 4월 12일 영광으로 출격하였다는 사실이다. 4월 7일 전봉준 장군의 농민군이 황토제에서 전주서 파견된 감영군과 싸워 승리하고 정읍 삼거리에서 야영한 뒤 홍덕·고창을 함락시키고 4월 9일 다시 무장에 도착한 것이다. 일부는 무장읍에 주둔하고 주력부대는 왕제산에 진을 치고 전력을 재충전하였는데, 이것은 홍계훈이 이끄는 감영군의 동태파악에 유리한 지세이다.

신용하 교수와 배인수씨의 정리에서 보듯이 전봉준과 손화중은 현실적 개혁을 추구하는 이른바 남접이라 불리우는 서장옥 계열로 일찍이 의기가 투합하고 있었고, 그들은 동학의 조직망을 이용해 거사의 뜻을 각처에 알리고 동지를 규합했다. 마침내 갑오년 3월 20일 무장 구시내(당산)에서 동학농민군은 그 유명한 「무장창의문」을 만방에 선포하고 동학농민혁명의 횃불을 올렸다. 이로써 동학농민혁명의 1차 봉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3월 13일께 고부에서 무장으로 잠입한 전봉준과 그의 일행은 그곳의 손화중포와 합류하였고, 무장 구시내에서 본격적으로 혁명을 준비했다. 이들은 무장현감의 지시를 어기며 세를 규합하고 창의를 위한 무장을 갖추어갔다. 이곳에서 전봉준과 손화중은 불과 수일만에 수천명의 동학농민군을 무장당산에 집결시킬만큼 혁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역량을 과시했다.

무장에서 발표된 동학농민군의 제일성 즉 「무장창의문」은 무장에서의 기포가 이제까지의 민란과는 현격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창의문은 충효를 바탕으로 하는 유교적 윤리관에 기초하여 부패한 탐관오리들을 매섭게 질타하고 있으며,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근본이 꺾이면 나라가 쇠잔해지는 것이다”라고하여 이른바 ‘民惟邦本’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제 의기를 들어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으로 죽고 사는 맹세를 하는 바이니...”라고하여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의 당당한 대의를 내걸고 있다. 요컨대 무장에서의 기포가 유교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일관되게 강조하면서도 거병(擧兵)의 목적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 이 창의문에서는 그동안 동학교도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교조신원이나 포교의 공인을 요구하는 종교적 목적을 배제하여 명실상부한 혁명의 시작임을 알렸던 것이다.

(2) 무장·고창·홍덕에서의 1차 동학농민혁명

6) 이곳은 1940년경 간척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해수의 유입이 차단되었다.

무장·고창·홍덕의 동학농민군은 이제 무장에서의 기포를 시작으로 혁명군대로서 진군을 시작했다. 『고부민요일기』에 따르면 3월 20일 무장 동학군 수천명은 굴치(屈峙)를 넘어 줄포(茁浦)를 통과하여 4월 3일 부흥역(현 扶安郡 幸安面)에 이르고, 고창 농민군은 3월 29일에 출발, 무장과 고창의 동학군이 합류하여 4월 4일 부안현아(扶安縣衙)를 점령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3월 25일의 백산대회⁷⁾에서 주력을 이룬 것은 손화중포가 이끈 무장의 동학농민군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백산대회에서 호응한 고창지방의 동학군 출병내력은 頭領(將領)에 吳河永, 吳時永, 林亨老, 林天瑞 등의 영솔하에 1,500명, 무장의 두령 宋敬贊, 姜敬重 등 영솔하에 1,300명, 홍덕 두령 高永淑 영솔하에 700여명 그리고 그밖의 지도자로 고창에 洪樂觀, 洪桂觀, 무장에 宋文洙, 宋珍浩, 長斗一, 郭昌旭, 홍덕에 高永伯 등이 참가하였다.⁸⁾ 이들 고창지방의 농민군 지도자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과정을 통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대부분 그 활동내용이나 일생이 정확하게 조명되고 있지는 않다.

백산대회를 통해서 전열을 가다듬은 동학농민군은 4월 7일 황도현의 전투에서 최초로 관군과 맞붙어 대승을 거두었고, 동학농민군은 승세를 잡고 전주로 진격해 갔다. 한편 무장지방의 농민군은 전력강화를 위해 남쪽의 여러 군·현을 점령하고자 4월 8일 오전 홍덕 관아를 습격, 군기고를 부수고 탄약과 조총, 창검, 화약 등을 탈취한 후 정오경에는 고창으로 진주하였다. 이들은 먼저 옥문을 열고 간혀있던 동학교도 7명을 석방하고 동헌을 점수했다. 또한 이들은 성 아래 동부리에 있는 토호 殷大靜의 집으로 몰려가 가산을 파괴하고 소각한 다음 이날밤 고창에서 머물렀다.

4월 9일 농민군은 드디어 무장에 진입했다. 동학농민군의 무장 진주상황을 무장의 관리들이 전라도 감사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申時(오후 3시경)에 1만여명이 읍내로 들어와 옥문을 부수고 옥중의 동학도 44명을 석방하고, 座首, 首校, 官屬들을 붙잡는대로 살해했으며, 성 안팎의 7거리에서 죄를 저지른 인가를 모조리 소각했다’고 전하고 있다.

무장은 동학농민군의 총관령이었던 손화중포의 근거지로 동학세력이 우세했으며, 그에 따라 동학교도에 대한 지방관의 탄압이 어느 고을보다 가혹했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의 무장현에 대한 응징도 강경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리들의 보고에 의하면 “성 안에서는 설새 없이 포를 쏘아대고 한편으로 관속들을 색출하면서 또다른 한편은 성 밖의 여시피(孤山峰 현 무장면 신촌리 왕제산 서봉)에 설진(設陣)을 하고 있었다. 또 혹은 갑옷을 입고 총과 창으로 무장을 한 동학군들이 성내를 누비고 다

7) 백산대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전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혁명적 열기가 가장 기세를 올렸던 대회였다.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 농민군은 백산에 이르러 각지에서 모여든 농민들을 모아 진을 정비하고 군제를 편성했으며, 혁명의 대의를 보다 분명하게 천명했다.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로 부상한 것이 이 대회였으며, 고창의 손화중은 남원의 김개남과 함께 이 대회를 통해서 총관령(總管領)으로 추대되었다. 백산대회는 이른바 혁명의 이념과 조직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된 대회였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부군에 속했던 백산은 현재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에 위치하고 있다.

8) 이기화, 「전봉준은 고창 당촌 태생」, 고창문화원 『향토사료』 11-12쪽 참조. 이후 고창지방의 동학농민군 행적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조하였다.

너 성 안의 정황을 엿탐해낼 길이 없다'고 하여 동학군의 강경한 태세와 당시의 긴장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무장현의 신임현감 김옥현은 미처 부임도 하지 못한채 파면되었고, 흥덕과 고창의 관아 건물은 이때 모조리 불태워 졌으나 무장관아만은 화를 면했다. 무장관아가 화를 면한 것은 무장출신 농민군들의 적극적인 만류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덕택으로 지금껏 무장관아는 동헌과 객사 등이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되는 귀중한 유적이 되었다. 한편 무장관아와 관련해서는 무장의 서리들이 동학농민군과 동조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동학농민군은 무장에 입성, 3일 동안 머물면서 황토현 전투 이후의 휴식을 취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전주에 와 있는 초토사 홍계훈이 거느리는 경군의 추격에 대비하여 호산봉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3)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실패

동학농민군은 4월 12일 다시 남하하여 다음날 정오에는 영광에 이르고 이곳에서 4일간을 머문 뒤 4월 17일 함평, 무안을 거쳐 나주로 진주하였다. 이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전역을 거의 석권했고 충청지방의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오기 시작했다. 조정에서는 4월 2일 홍계훈을 양호 초토사로 임명하여 토벌의 책임을 맡겼고, 홍계훈은 경군 800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인천을 출발 4월 6일 군산에 도착하여 이튿날 전주에 입성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조정이 파견한 500명의 관군들을 법성포에서 패퇴시키고, 다시 4월 23일에는 장성 황룡강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농민군의 기세는 꺾일줄을 몰랐다.

동학농민군은 승승장구하면서 정읍, 태인, 원평, 금구를 거쳐 4월 27일에는 마침내 전주에 입성했다. 무장에서 기포한지 약 한달만의 일이었다. 전주에 입성한 동학농민군은 조정과 일시적으로 휴전하고 전라도 각지에서 이른바 '집강소 정치'를 시작하였다. 농민군은 이 기간동안 그동안의 폐정을 개혁하고 농민자치의 새로운 정치를 펼치면서 정국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다.

이때 조정의 요청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아산에 상륙한 청국병과, 이를 빌미로 인천에 상륙한 일본과 조선 내정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민비 등의 수구파를 몰아내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 새로이 개화파 중심으로 구성된 김홍집 내각의 등장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주화약 이후 약 두달 반만인 9월 10일을 전후하여 동학농민군은 삼례취회를 재봉기를 단행, 호남 53군현의 16만명의 군세를 확보하여 한양으로 진군했다.

이제 전국적인 봉기로 확대된 동학농민혁명은 뒤늦게 합류한 북접세력과 함께 힘을 모아 논산, 공주를 거쳐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과 격전을 치렀지만, 우금치에서의 처절한 패배를 끝으로 퇴각의 길로 접어들었다. 퇴각을 거듭한 동학농민군은 마침내 11월 27일 태인에서의 전투를 끝으로 해산의 비운을 맞았고, 전봉준 등의 지도자들은 그해 12월과 다음해 1월까지 모두 체포되어 1895년 3월 서울에서 처형됨으로써 1년여에 걸친 동학농민혁명은 막을 내렸다.

한편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의 주력이 북진과 함께 패배를 거듭하는 동안 손화중과 최경선은 일본

군의 나주상륙에 대비하여 나주에 머물러 있었다. 손화중과 최경선 등 나주에 머물러 있었던 동학농민군은 주력군의 공주 패전 후 농민군의 최후 항전을 위해 인근의 농민군을 나주로 결집시켰다. 이때 林亨老, 林天瑞 등은 5,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창에서, 宋敬贊, 宋文洙, 姜敬重은 7,000명을 거느리고 무장에서, 高永淑은 흥덕에서 2,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각각 봉기함으로써 고창농민군의 형세는 14,000여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손화중을 쫓아 남진하면서 광주, 나주 일대에 결진, 일본군의 해로를 통한 역습에 대비하였다.

장성 유생 鳳南 邊萬基가 쓴 『봉남일기』에 의하면 ‘고창의 동학군 1,000여명이 고수면 殺夷峙를 넘어 석양에 황룡장터로 이동 집결하였고, 11월 22일에는 고창 동학의 두령 林天瑞가 기병하여 함평으로 출진하였으며, 이날 또 흥덕 고창의 동학군 1,000여명이 나주로 행군하여 갔는데 이때 흥덕의 대접주는 고영숙, 접주 흥동관이었다. 11월 24일 정읍 입암리 등천리(등내)와 고창 동학군 수천명이 장성 고을에 유진하였다’ 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던 고창의 손화중과 그의 부대가 어떤 전투에 참전했고, 어떻게 패퇴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분명치 않다. 다만 손화중과 그의 부대가 수차례 나주성을 공략했으나 점령에 실패했고 이후 광주에 입성, 잠시 머문 뒤 12월 1일 대세가 기울었음을 판단하여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해산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손화중은 부대를 해산시키고 다시 고창군 부안면 수강산(壽江山) 산당(山堂)으로 피신한다. 여기에서 관군에 잡힌 그는 1895년 3월 29일 전봉준·김덕명·최경선·성두한 등과 함께 ‘대전회통형전중(大典會通形典中)의 군복기마작변관문자부득시참(軍服騎馬作變官門者不得是斬)’이라는 율에 의해 35세를 일기로 참수된다.

3. 고창지방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현황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고장이었고 수많은 유적들을 간직하고 있지만, 현재 고창지방에 세워져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물은 단 한 가지 밖에 없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었던 1994년 고창군 공음면에 세워진 무장창의포고비가 바로 그것이다.⁹⁾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라고 이름 붙여있는 이 포고비가 유일하게 고창지방의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유적지마다 그럴듯한 기념물과 조형물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런 기념물의 높이나 크기가 그 역사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창지방의 동학농민혁명은 확실히 다른 지방에 비해서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전과정을 통해 고창지방에서 발생한 몇가지 중요한 사건과 장소들을 되새기면서 그 의미와 현재의 상황들을 점검해 보기로 하자.

(1) 무장기포지

9)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물에 대해서는 박명규,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 -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51호, 문학지성사, 1997. 참조.

무장기포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 학계의 정설로 자리잡았다. 오지영은 그의 책 『동학사』에서 고부민요와 무장기포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무장기포는 오랫동안 백산(白山)대회와 혼동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1차 사료로 볼 수 있는 전봉준의 심문기록인 「공초」에서 전봉준은 자신이 이끈 농민군 주력부대의 이동 경로를 무장-고부-태인-금구-부안-고부라고 직접 증언하고 있다. 또한 「전봉준 판결선고서 원본」에도 “피고가 친히 其徒를 영솔하여 전라도 무장에서 일어나다” 라고하여 봉기의 출발점이 무장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부민요일기』에서는 “그런데 급보가 하늘에서 날라왔으니 때는 3월 20일¹⁰⁾ 이날 덕흥(德興)리(현재의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덕흥)의 장꾼이 돌아와 이르기를 동학군 수만명이 무장의 굴치(屈峙 현재의 고창 아산면으로 무장쪽에서 고부로 통하는 옛길)를 넘어 덕흥리를 지났다고 한다. 다음날은 고창에 모여 점차 서쪽에서 올라와 일부 군대는 정읍에서 고부로 들어가고 일부 군대는 사포(沙浦)로 왔다”고 기록하여 무장기포를 간접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이같은 사실은 『잡오사기』 등의 기록에도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무장기포의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일까. 그 장소는 일단 무장의 구시내(九水) 혹은 당산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갑오년 3월부터 광무 2년(1898년) 7월까지 4년여에 걸친 전라도 지방 관청의 공문철인 『수록』에서는 무장기포의 상황을 날짜 및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기록 가운데 ‘음력 3월 16일부터 수상한 무리들이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에 모이기 시작하여 3일 동안(18일까지) 법성현(法聖縣) 진량(陳良)면 용현(龍峴)리(현 전남 영광군 법성군 용덕리 용현마을)에서 죽창을 만들고, 민가에서 무기류를 탈취하는가 하면 동학에 반대하는 자들을 잡아다 구타했으며 군량미를 확보한 뒤 대오를 정리함’이라는 대목이 있다. 구시내 혹은 당산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에 속한다. 이 마을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몇해전까지만 해도 큰 팽나무인 당산나무가 있어 당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고 아직도 마을 사람들은 구수 보다는 당산이라는 이름으로 즐겨 부르고 있다. 공음면 소재지에서 상하면을 잇는 2차선 도로가에 자리잡은 이 마을은 당시 무장현 동음치(冬音峙)면 구수였다. 구수를 풀어 구시내로 불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무장기포의 현장인 공음면 구암리 마을에는 지난 94년 세워진 무장창의포고비가 있다. 고창동학기념사업회는 이 무장봉기포고문을 제막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은 무장땅에서 거사의 사전 계획과 모의 아래……당산골에서 제1차 봉기가 이루어졌고 그 영도자가 당촌 태생인 것으로 확실히 규명됨으로써……이제 고창 땅은 가히 ‘농민봉기의 성지’로서 ‘의장 고창’의 맥을 잇는 뜻깊은 역사의 고장이 되

10) 무장기포가 3월 20일인지 21일인지는 확실치 않다. 『고부민요일기』는 3월 20일을 기포일로 못박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3월 20일이라는 일자를 아무 의미없이 명기했을 리가 없고, 이날이 아니라는 다른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무장기포를 3월 20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용하, 정창렬 등은 무장기포일을 3월 20일로 ‘판단’하거나 ‘확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기록인 최영년의 『동도문변(東徒問辯)』은 무장기포일로 3월 21일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이이화는 3월 21일일 ‘개연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날이 해월 최시형의 탄신일이라는 점에서 그 연관성을 추측하는 입장도 있다. 김은정 외, 『동학농민혁명 100년』 157-159쪽 참조.

었다”고 주장하였다. 무장창의포고비를 통해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서 그 의의를 평가한 것이다. 무려 100년만에 고창의 동학농민혁명이 자신의 고장에서 복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포고문을 새기고 비를 세우는 것만으로 역사는 기념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그에 바탕해서 그 정신과 의의를 되새기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장기포는 여전히 상당한 부분이 베일에 쌓여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결코 단시간내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향토사학계와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연구속에서 확인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의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2) 무장관아와 여시외봉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은 북상에 앞서 전력을 강화하고 뒤를 든든히 받치기 위해 전라도의 각 군·현을 차례로 점령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고창·무장·홍덕 등은 모두 농민군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이 있기 전부터 이 지역의 동학교도들은 가혹한 탄압을 당했으며 따라서 농민군의 진주와 함께 관리들과 관아는 강력한 보복을 받았다. 그 와중에 고창과 홍덕의 관아 건물들이 불타고 온갖 공문서들이 소각되었지만, 무장관아는 극적으로 화를 면했다. 여기에는 무장 출신 농민군의 만류와 함께 농민군에 대거 동조한 그곳 서리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뒷날 무장현감 조명호가 난이 일어났던 초기에 창의기를 제작하는 등 농민군과 연합했다는 죄목으로 파면당한 기록이 남아있고,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상당수의 무장 관속배가 모여 ‘우리는 모두 동학에 입도했다’고 말했다는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무장관아는 고창의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이 된다. 더욱이 손화중포의 핵심적인 근거지에서 부패한 정부의 상징이었던 관아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동학농민혁명이 당시 핍박받는 농민들과 서리들까지를 포괄하는 민중혁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농민혁명이라는 긴장감 넘치는 역사속에서 무장관아가 원형을 보존하고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장관아는 특별한 조명을 받아야 한다. 무장관아와 객사는 지금도 침묵으로 무장의 역사를 웅변하고 있다. 그 자리에 동학농민혁명과 무장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변변한 안내판이라도 하나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기원이 되었던 관리들의 부패와 당시 민중들의 생활상을 부분적으로라도 복원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모든 기념물들이 저항의 결과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항의 원인과 사례를 생생하게 복원하는 것도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작업의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장에서 세를 규합한 농민군이 모여 훈련을 받고 무장을 강화했다는 여시외봉 역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유적중의 하나이다. 무장기포의 현장 구수마을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킬로미터 가량의 거리에 있는 여시외봉(弧山峯)은 표고 152m 고지에 불과한 야산이지만 무장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사방이 터지고 방위와 공격에 유리한 지형이다. 이곳은 오늘날의 행정구역

으로 무장면 신촌리에 자리잡은 왕제산이다. 그러나 이곳 역시 아직 사적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백산이나 황토현 역시 당시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못하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 기념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는 기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중요한 유적이 되기도 하고 전설로 남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장과 관련하여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무장 농민군 지도자들에 대한 행적조사도 중요한 과제로 남겨졌다. 무장지방에서 활동했던 농민군 지도자들은 1894년 11월부터 체포되기 시작하여, 이듬해 3월 30일 하루동안 일본군에 의해 73명이 한꺼번에 처형당한다. 이들이 방면되지 않고 포살된 것으로 볼 때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인물들로 판단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 대한 행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애와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활동상황들을 조사하는 것도 고창의 지방사를 바로 세우는데 커다란 의미를 가질 것이다.

(3) 전봉준의 출생지¹¹⁾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는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답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지이다. 특히 온갖 논란¹²⁾ 끝에 전봉준의 출생지로서 학계의 인정을 받으면서 동학농민혁명의 답사지로서 수많은 관광객들과 연구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 조그만 마을에는 입구부터 현장까지 전봉준 장군 혹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어떤 유적도 남아있지 않으며 안내판 조차 세워져 있지 않다. 그동안 수차례의 답사를 통해서도 전봉준 장군의 생가터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마을 노인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생가터는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 고창읍 죽림리 당촌 54번지로 알려져 왔다. 이곳은 지난 1993년 1월 11일의 답사에서 당촌에 거주하던 조병두씨(1923년생)의 증언으로도 확인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학술조사 및 답사과정에서 얻은 증언과 지적도를 정밀 검토한 결과 정확한 생가터는 고창읍 죽림리 당촌 63번지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이곳에 살고 있는 이상현씨(李相賢, 36년생, 47번지 거주)는 이 마을에 살았던 송태희씨(생존했다면 98-99세)로부터 전봉준 생가터의 위치를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전봉준 생가터로 확인된 63번지 바로 앞집에 거주하는 김용철씨(49년생, 64번지)로부터도 역시 같은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안내표식이 없어 마을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야만 찾을 수 있는 이곳 당촌 63번지는 현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밭이 일구어져 있다.

이와 함께 이곳에는 전봉준 장군 선대의 묘소도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 묘소들은 혼한 비석 하

11)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가 고창 당촌으로 밝혀진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역사학계는 전봉준의 출생지를 두고 오랜 논쟁을 벌였으며 그만큼 분명한 자료가 나타나지도 않았다. 지금은 전봉준 고택으로 바로잡힌 정읍군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당시 고부군 궁동면)은 불과 몇해전까지만 해도 전봉준 장군 생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고창 당촌 출생설은 학계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12) 이 글에서는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에 대한 그간의 논쟁은 다루지 않았다. 송정수 교수의 발표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에 대한 고찰」을 참조.

나도 없이 방치되어 있고, 지금은 찾는 이조차 없는 버려진 땅이 되고 있다. 마을 고로(古老)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씨 일가의 묘소는 김용철 부모 묘소 5미터 앞쪽 정면에 가로로 2기 좌측에 세로로 2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지적도 24-21번지), 지금은 흔적이 거의 없다. 앞서 전봉준 장군 생가터를 증언해 주었던 이상현씨에 의하면 신림면 만화동에 살았던 전동근씨가 이곳 묘소를 다니면서 수년전까지 별초하곤 했으나, 최근에는 별초하는 이조차 없다는 것이다.¹³⁾

(4) 손화중의 근거지와 피체지, 그리고 선운사 미륵불

고창지방에서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전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농민군 지도자였던 손화중은 대단히 특색있는 인물이었다. 전봉준, 김개남과 함께 동학농민군의 3대 지도자 중 하나였던 그는 그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왕성한 세력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정읍현 남일면 두교리(현 정읍시 두교동)에서 태어났고,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20대에 지리산 청학동에 들어간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동학과 만난다.

입교 2년만에 돌아온 그는 고향을 중심으로 도를 퍼뜨렸고, 무장현으로 근거지를 옮겨 동학 포교소를 설치하면서 무장을 혁명의 땅으로 만들었다. 그는 고창 지방 곳곳을 이동하면서 동학을 널리 포교했고, 그가 떠난 곳에는 늘 건실한 동학의 조직과 세력이 구축되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그는 34세에 불과했지만 그는 최대 계파를 보유하고 있었고, 총 8천여명이 집결했다는 백산대회에 그가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3천5백명이었다고 『동학사』는 전한다. 그동안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는 처음 무장기포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백산대회 이후 그는 철저하게 전봉준의 노선을 따랐으며 결국 같은날 같이 처형당했다.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하고 그가 잡힌 곳은 고창군 부안면 안현리로 알려져 있다. 안현리 피체설은 그동안 정읍문화원 최현식 원장이 현지를 답사하면서 구전으로 전해내려온 이야기를 정리한 것으로 기록으로 뒷받침된 사실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학술조사과정에서 초토사 이두황이 남긴 것이 거의 확실한 『양호우선봉일기』에는 손화중의 피체지가 부안면 壽江山 山堂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이 확실하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손화중의 마지막 행적은 재고되어야 한다.

壽江山 山堂에 몸을 숨기고 있던 손화중은 그의 동생 익중(益中) 조카 여옥(如玉) 등이 정읍에서 처형당하고 집안 조카 순경(順京), 무경(武京), 처남 유용수가 또다시 홍덕에서 희생되었으며, 전봉준 김개남이 체포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실지기인 이봉우에게 ‘네가 나를 고발하여 큰 상을 받아라’고 말했다. 그를 고발한 이봉우는 훗날 그의 말대로 영광군수에 제수되는 영광을 누렸다.¹⁴⁾

이렇듯 손화중은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창지방 동학농민혁명사의 핵심인물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행적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뿐 그의 극적인 삶과 혁명적 의기에 값하는 어떤 유적도 남겨져 있지 않으며 기념물 하나도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다.

13) 전씨 일가의 묘지에 대한 사실은 지난 1993년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당시 확인된 바 있었다. 당시 전북일보 답사팀이 현장을 찾았을 때 완전한 형태의 봉분 5기가 남아 있었다.

14) 김은정 외, 『동학농민혁명 100년』 493-495쪽 참조.

손화중과 함께 선운사 미륵불의 전설도 빠트릴 수 없는 유적이다. 선운사 도솔암의 마애석불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2년전인 1892년(임진년) 8월, 무장의 손화중포에서 일어난 석불비결 탈취사건의 진원이 된 마애불을 말한다. 오지영의 『동학사』는 ‘임진년 8월 무장 대접주 손화중이 민중들 사이에 널리 회자된 석불비결을 교도들을 동원하여 탈취하는 소동을 일으켰다’고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마애불의 비결은 신라시대의 점단선사가 석불의 배꼽에 숨겨놓았던 것으로 일찍이 전라감사 이서구가 그것을 꺼내려다 벽력이 내리쳐서 도로 넣고 봉해버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바로 그 배꼽 비결을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던 손화중의 소두목들이 탈취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고창지방에서 손화중의 차지하고 있었던 영향력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민중들의 신뢰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선운사 도솔암에 있는 마애석불은 1973년 지방 유형문화재 30호로 지정되었지만, 동학농민혁명이나 혹은 손화중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표식도 남겨져 있지 않다.

(5) 무장창의문과 무형의 유산들

고창 지방 특히 무장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곳곳에 역사를 묻어두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선조들의 정신과 강건한 의지를 확인하고 새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장창의문」은 고창지방의 동학농민혁명은 보다 새롭게 해석되고 교육될 필요가 있다.

물론 「무장창의문」이 백산대회에서 발한 격문에 비해서 혁명성이나 이념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의의만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혁명의 초기에 도전하는 세력과 응전하는 세력의 의지를 상호 타진하고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도 혁명의 대의를 내걸었던 「무장창의문」은 그 본고장인 고창지방에서조차도 이렇다할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무장창의문」이 온전하게 그 의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창의문이 발표되기까지의 상황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농민군의 주체적 조건이 세밀하게 점검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군의 주축을 이루었던 고창지방 농민군 지도자들의 행적과 그들이 개인적으로 남긴 기록과 유품들도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들의 생활상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저항의 원인을 밝혀내는 작업은 반드시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한 지도자 및 농민들의 기록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관변기록과 유생들의 개인기록들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결국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사건은 그 시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통해서 그 의의가 살아날 수 있다.

(6) 홍덕에 대한 재평가

이번 학술조사에서 얻어진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홍덕지방에 관한 기록의 발견이다. 그동안 홍덕은 동학농민군 장수 고영숙의 활동 근거로 알려져 왔을뿐 특별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창, 무장과 함께 홍덕은 고창지방의 대표적인 활동근거였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

던 것이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유명한 초토사인 이두황이 남긴 것으로 추측되는 『양호우선봉일기』에는 홍덕 출신의 농민군 지도자들과 그들의 행적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동학농민군의 기포 이후 손화중을 따라 전라도 후방을 지켰던 인물들로, 각기 놀라운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홍덕 대접주로 칭해졌다는 고태국(高泰國)의 경우 “백성들에게 2,600여냥을 강제로 거두어 화약제조 시설을 만들었다. 10월 18일에는 나주성을 함락한다며 그 무리 수백명을 이끌고 광주로 갔다가 도망하였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고, 김도순(金道順)의 경우 “재인으로서 접주를 지냈는데 그 무리를 이끌고 양반들을 포박·구타하고 노략질한 것이 심했다”고 하며 12월에 홍덕 수성군과 민병에게 체포되어 공개 처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도순의 경우 손화중포에서 가장 용맹한 부대였고, 홍낙관이 거느렸다는 재인부대의 실체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희풍(李希豐) 같은 이는 “동학 사접의 괴수로 고부·장성·전주 전투 등에 모두 참여했고, 원평에서는 왕명을 받는 선전관(宣傳官)을 살해”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신준식(申俊植)의 경우 홍덕 출신은 아니지만 홍덕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접사(接司)의 직책을 맡았고, “홍덕현에 있는 명례궁답(明禮宮沓)의 도조(賭租) 50여석을 임의로 방매”하는 등의 대담한 활동을 벌이다 12월 홍덕에서 처형되었다는 기록도 나타난다.

이러한 기록들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홍덕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들이다. 『양호우선봉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홍덕 출신 농민군 지도자들의 수와 활동내력이 만만치 않고, 더구나 이들 모두가 그해 12월중 홍덕에서 체포와 함께 처형되었다는 사실은 고창지방 동학농민혁명사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이러한 인물들의 기록과 그 행적에 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정리해내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4. 동학농민혁명과 지역적 계승을 위한 제언

고창지방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과정을 걸쳐서 가장 안정적이고 활력있는 혁명의 진앙지로서 역할해왔다. 무장에 이르러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비로소 군대를 구성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혁명의 큰 그림을 그려나갔다. 농민군 최초의 선전포고이자 호소문이었던 「무장창의문」이 그렇고, 동학농민혁명의 과정에서 후방에서의 방위와 군량미 공급을 맡았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또한 그렇다.

그러나 고창은 오랜 세월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는 혁명의 진앙지로서 가혹한 탄압과 억압속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제대로된 연구가 부족했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오랜 세월동안 동학농민혁명의 참가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떨쳐버리지 못했던 피해의식도 혁명사의 복원을 가로막았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방사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역사가 사실과 해석이라는 두 개의 차원을 갖는다면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사실에 바탕한 해석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고창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계승하는데 있어서 견지해야 할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지방사의 복원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조선은 점차 일본의 식민지적 지배체제로 편입되어갔다. 1919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는 조선의 저항정신과 한국인의 의기를 무너뜨리기 위해 집요하고도 치밀한 작업을 펼쳐왔다. 그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게 조선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렸던 것은 1914년 일제에 의해 주도되었던 행정구역 개편이었다.

일제는 혁명의 고장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정구역을 분할하고 그럼으로써 혁명적 전통을 말살하려 했던 일제의 식민지 정책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전주 다음의 군세를 떨쳤던 고부나 고창 홍덕과 나란히 전라도 53개 군현의 하나였던 무장의 쇠락은 결코 우연의 역사가 아닌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무려 19개면을 관장하면서 3만여명의 거주인구를 지니고 있었던 고부군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면·리 단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해체되었다. 무장 역시 그정도는 아니었지만 마찬가지로 운명을 겪었다. 고창 홍덕과 어깨를 같이했던 무장은 지금 고창의 일개 면으로 전락했고, 쇠락한 구읍(舊邑)의 면모를 벗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장만의 일이 아니다. 무장과 함께 고창, 홍덕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발전의 계기를 잡지 못한채 쇠락해왔다. 이같은 외형적 쇠퇴는 고창지방의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곧 지역의 자기 정체성을 잃는 계기가 되었다. 고대사로부터 근세사에 이르기까지 고창지방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화유산과 선조들의 의기는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지역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역사에 담겨있는 잠재적인 문화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결코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자세인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방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은 가치관과 생명력을 우리의 역사에 재투영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발견하는 작업이며 이 작업은 단순한 회고적 감상일 수 없다.¹⁵⁾

고창이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합의와 동의에 기초한 정체감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정체감의 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방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될 것이다.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복원 및 재조명과 기념사업은 그런 작업의 핵심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 권역별 연구의 의의와 과제

동학농민혁명에 관련한 고창과 정읍은 미묘한 관계속에 놓여져 있다. 오랜 세월동안 고창과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의 위상과 비중을 놓고 학문적으로 다투어졌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당시나 지금이나 고창과 정읍은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고장이며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은 역사를 통해서 오랜 세월동안 생활권과 역사적 경험을 공유해왔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시사를 준다. 즉 고창과 정

15) 이해준, 「향토사 연구의 필요성」, 이해준 외, 『향토사 이론과 실제』, 1992. 향토문화진흥원. 21쪽

읍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과정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지역이었다.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고창과 정읍의 관계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사례는 전봉준과 손화중의 관계이다. 전봉준은 고창에서 태어났으나 정읍에서 자라 동학농민혁명 당시 정읍에 활동 근거를 두고 있었고, 손화중은 정읍에서 태어났으나 고창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 두 지도자는 서로의 출생지와 활동근거를 교차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두 주역이 되었다.

전봉준과 손화중의 이 절묘한 교차는 어떤 의미에서 결코 우연일 수 없다. 고창과 정읍이라는 두 지역이 서로 생활권을 같이하고 삶의 조건과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만남이었던 것이다. 고창과 정읍의 농민군들은 대부분 이처럼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같은 사실에 기반하여 볼 때 고창과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어차피 고창과 정읍의 동학농민혁명이 서로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조건에 놓여져 있다면 이 두 지역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기념사업을 펼치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공동으로 개발해나가야 한다. 정읍에 있는 황토현 기념관과 전봉준 고택, 만석보 유지비 등의 유적들과 고창의 전봉준 장군 출생지, 무장기포지, 여시피봉, 무장관아 등을 묶는 권역별 기념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⁶⁾

이러한 기념사업은 관광자원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정읍의 내장산과 고창의 선운사를 축으로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을 수 있다면 두 지역의 기념사업과 관광사업은 서로 무한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3) 지역정체성의 확립과 지역축제로의 가능성

어느 사회에서나 해당 지역의 구성원들은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갖는다.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동질적인 삶을 영위하며 비교적 동질적인 삶의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¹⁷⁾ 이른바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함께 어떻게 지역적 주체를 형성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한결같은 고민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기획하고 있는 지역축제나 지방사 연구는 바로 이러한 고민의 결과들이다.

최근들어 지역축제는 점차 그 형식이나 지향성에 있어서 점차 새로운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

16) 기념사업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연구도 권역별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부터 있어왔다. 박맹수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연구와 관련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조선후기의 군현제도를 바탕으로 하면서 동학 조직의 지역별 결집 범위와 장시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통혼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맹수, 「전라도는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인가」,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와 백주년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최 동학농민혁명 시민강좌 자료집, 1992, 38-40쪽.

17) 정근식, 「지역정체성과 도시상징 연구를 위하여」,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지역사회 연구방법의 모색』, 1997. 전남대 출판부. 참조.

전의 소비적이고 의례적인 지역축제는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며, 축제의 내용과 형식이 지역주민들의 삶이나 확고한 지역성에 기반하지 못할 때 지역축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지역축제는 각 지역의 상징을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들은 모두 각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에 바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고창의 경우 모양성제라는 전통의 지역축제가 있지만 아직 고창만의 특별한 주제를 확고하게 선점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고창이 그 지방의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을 지역축제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면 그것은 지역정체성 확립에 효과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역사를 주제로 하는 지역축제의 경우 자칫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행사에 빠질 우려가 있으나 고창이 자랑하는 모양성과 동학농민혁명을 연관시켜 아이템을 발굴한다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대사의 분수령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동학농민혁명은 그 사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채 많은 부분들이 베일속에 가려져 있다. 이제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있어서 더욱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전체사로서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방사 연구가 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작업들은 곳곳에서 진행되었거나 시작되고 있다.

고창지방의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지나간 과거사에 대한 회고적 연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지역적 조건과 주민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것은 동학농민혁명의 전체사를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뿐만 아니라 고창의 지역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의 첫 시작인 것이다.

고창은 고대로부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유서 깊은 고장이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과 식민지 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상처와 쇠락을 경험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도 고창은 면면히 저항과 민족운동의 정신을 이어왔다. 바로 이곳 고창을 통해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그들은 곧 고창의 역사가 되었다. 그러나 고창의 역사가 더 이상 인위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군지 차원의 형식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고창은 쇠락한 옛 고을의 이미지를 벗지 못한채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할지 모른다.

고창의 동학농민혁명은 실로 눈부신 것이었다. 역사를 그 결과만이 아니라 저항의 원인과 과정에 눈돌려 새롭게 본다면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역사를 패배의 역사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근대사의 서막을 열었다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때, 이 사건은 고창의 지역정체성을 세워나가는 핵심이 될 것이다.